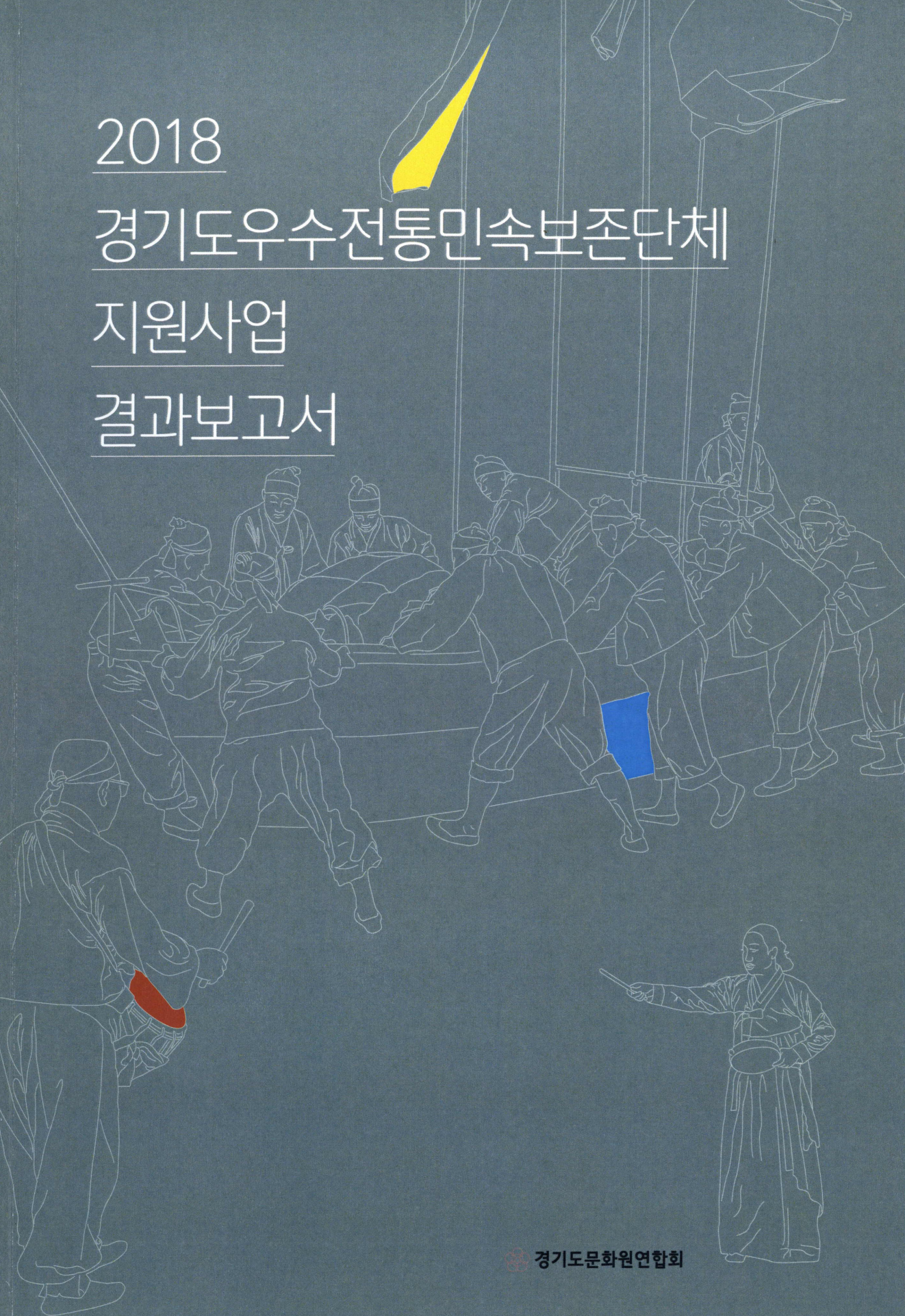


2018

경기도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18



경기도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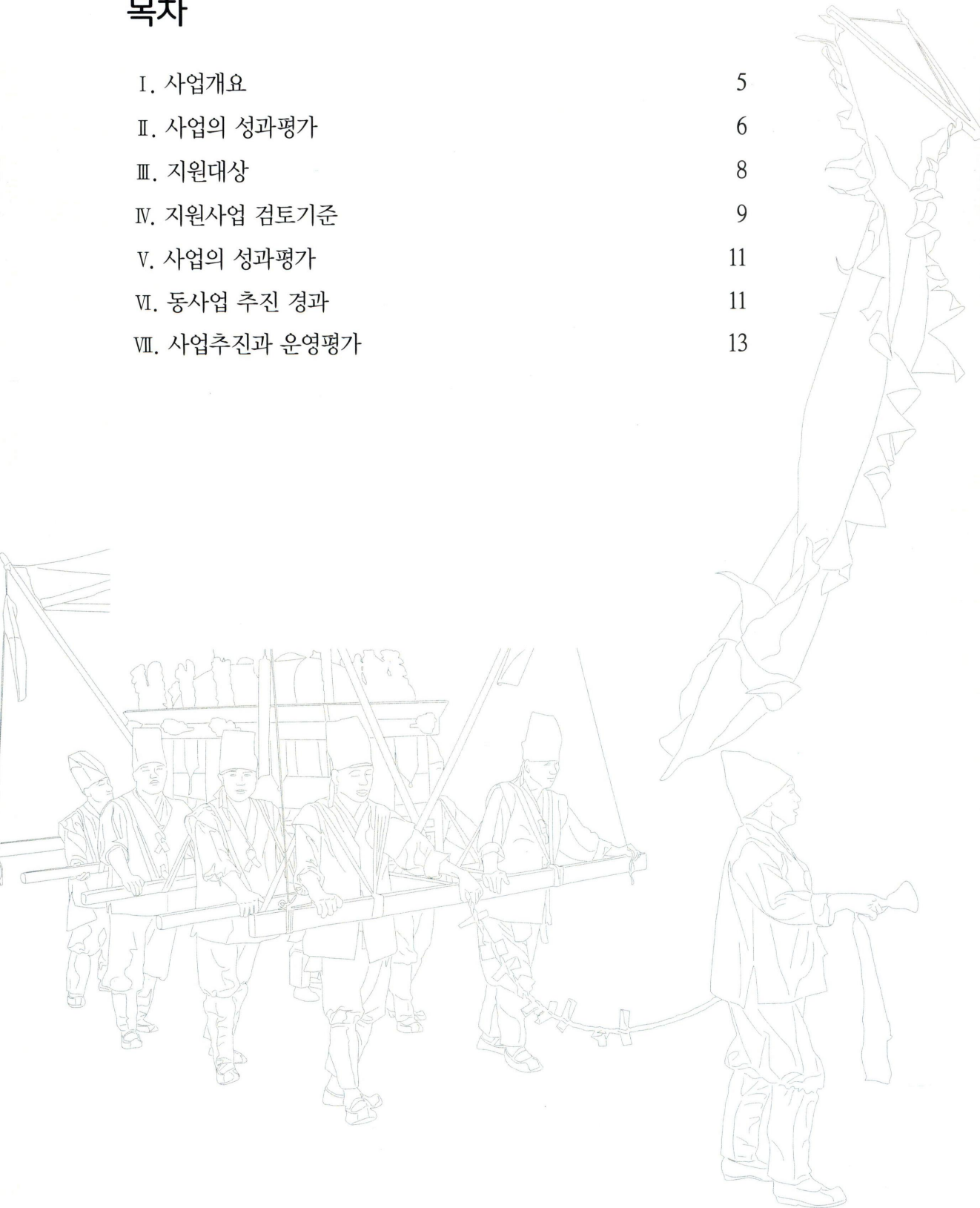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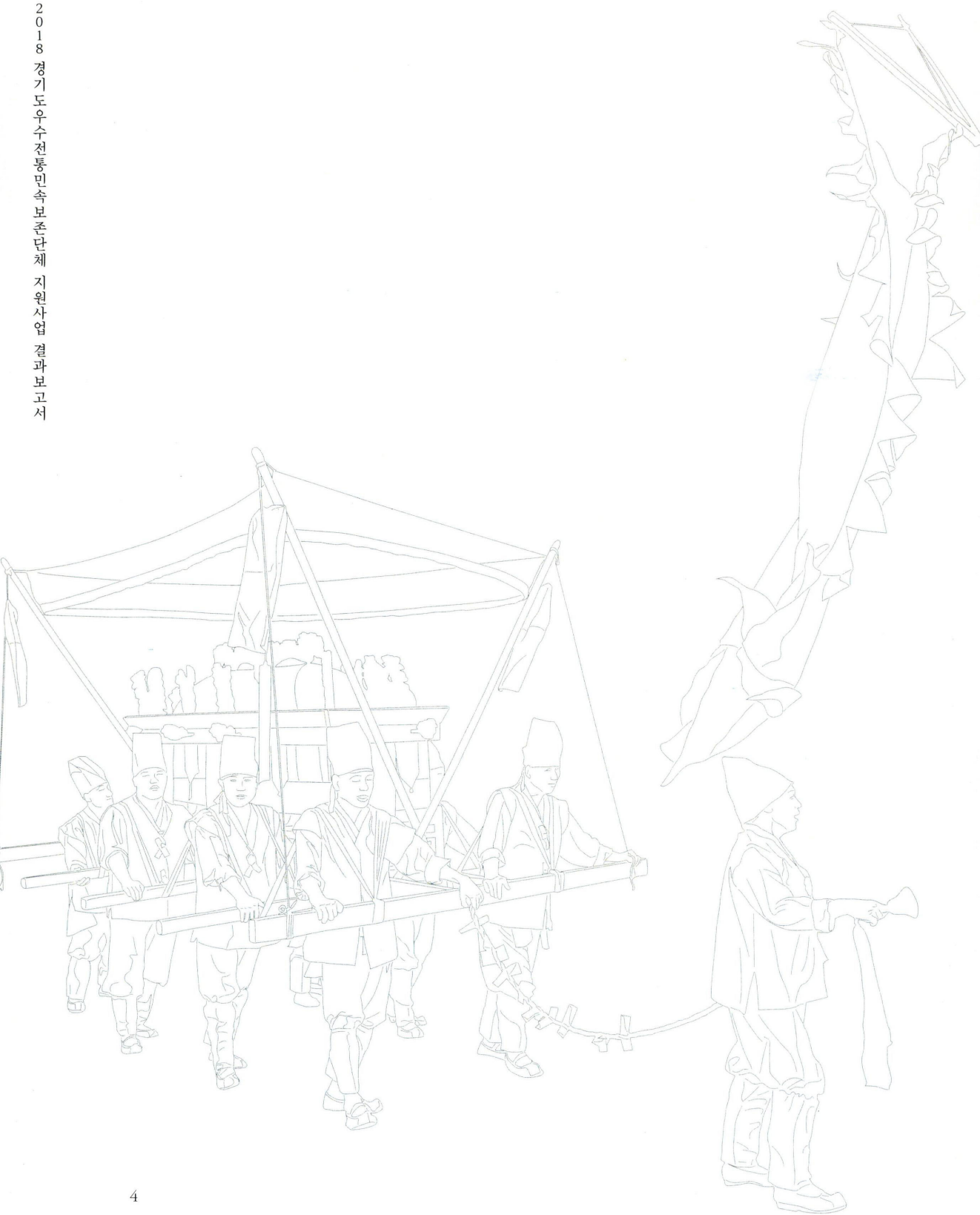
목차

I. 사업개요	5
II. 사업의 성과평가	6
III. 지원대상	8
IV. 지원사업 검토기준	9
V. 사업의 성과평가	11
VI. 동사업 추진 경과	11
VII. 사업추진과 운영평가	13



VIII. 참여문화원 현황과 추진 실적	19
- 고양문화원 진밭두레 농사소리	20
- 광명문화원 철산리 두레농악	30
- 광주문화원 엄미리 장승제	40
- 김포문화원 김포조강치군패/대명항배띄우는소리	50
- 동두천문화원 탑동상여회다지소리	62
- 시흥문화원 시흥향토민요	72
- 양주문화원 양주들노래	80
- 용인문화원 포은 정몽주 천장행렬	94
- 의정부문화원 녹양동 버들개농요	106
- 평택문화원 평택 어업요	116
IX. 운영규정	128
X. 언론 보도자료	131





I 사업개요

사업 개요

- 사업 명 : 경기도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4월 ~ 12월
- 사업 비 : 40,000천원(도비 40,000천원 , 자부담 등 0)
- 지원대상 : 2017년 경기도민속예술제 입상 10개 지역
(고양, 광명, 광주, 김포, 동두천, 시흥, 양주, 용인, 의정부, 평택)
- 주 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주 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10개 지역 문화원
- 후 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지원 근거

- 경기도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지원사업 운영규정

추진 목적

- 전통 민속 보존을 위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통민속보존단체 중 활동이 우수한 단체를 선정하여 전통 민속예술 보존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추진 방향

- 철저한 사업평가와 사후관리로 책임성 제고(전년도 사업성과와 연계지원)
 - 중북 교부 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 이력 등 체계적 관리
 -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민속예술 활성화 및 결과자료집 제작
- 지역문화원을 통해 단체선정 및 시행, 정산토록 함
- 전년도 대회 입상작품 우선 지원
단, 해당 지역 민속보존단체 선정은 문화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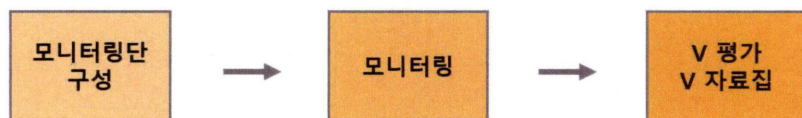
II 사업의 성과평가

평가시기

■수행상황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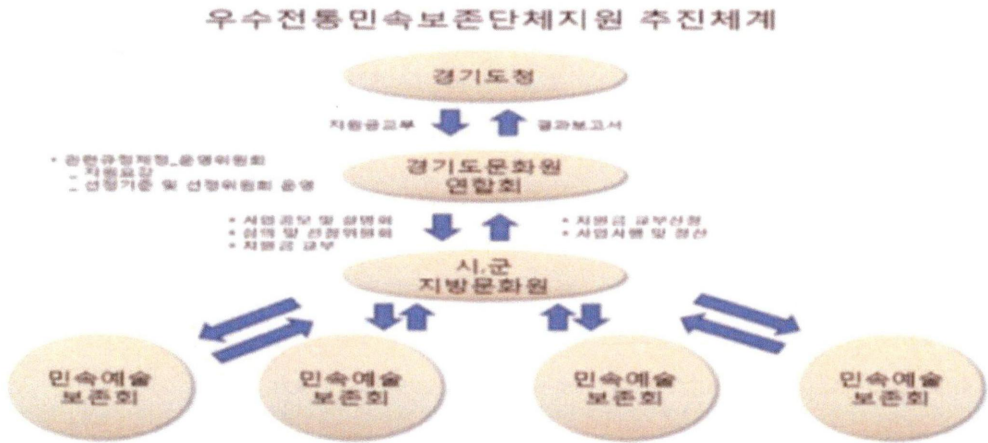
- 목 적 :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결과자료집 반영, 효과적인 지원방안 도출
- 주 관 : 도연합회 모니터링단 (경기향토문화연구위원 중 선발)

- 진행과정



- 해당문화원의 사업 수행날짜를 공시, 도연합회 모니터링단이 참여하여 현지 모니터링 후 도연합회에 정해진 양식으로 제출
- 해당문화원은 도연합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사업의 수행상황을 도연합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모니터링 내용
 - 민속보존지원단체 운영 현황 예)연혁, 자산규모, 회원수, 활동내역 등
 - 공연 or 전수프로그램 참여 예)참여인원, 홍보방법 등
 - 단체 대표 또는 회원과의 인터뷰 예)운영방안, 지원방향, 요구사항 등

사업추진체계



지원절차

지원계획 수립·사업공고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사업심사	심의→사업자 선정/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시행 및 정산	성과분석 및 공시
도연합회	대상문화원	도연합회	도연합회	해당문화원	해당문화원	도연합회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1~5일	기본 계획 수립	사업 설명회 및 신청서 접수	사업비 교부	사업진행 각 문화원별 사업진행 기간 파악 후 모니터링 진행					정산서 접수	평가회
6~10일										
11~15일										
16~20일										
21~24일									결과 자료집 발간	
25~28일										신청서 검토
28~31일										

III 지원대상

대상 사업 현황

(단위:천원)

지역문화원	지원규모	비고
고양문화원	3,500	제21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우수상
광명문화원	3,500	제21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우수상
광주문화원	3,500	제21회 경기도민속예술제 민속상
김포문화원	3,500	제21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예술상
동두천문화원	3,500	제21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예술상
시흥문화원	3,500	제21회 경기도민속예술제 민속상
양주문화원	3,500	제21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예술상
용인문화원	3,500	제21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공로상
의정부문화원	3,500	제21회 경기도민속예술제 민속상
평택문화원	3,500	제21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우수상

IV 지원사업 검토기준

지원범위 결정

- 자본적 경비는 지원제외
 - 편중지원 방지 및 다양한 분야의 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별 3,500천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의 적격성

- 설립목적 및 근거, 성격 등 지원 대상 요건 적정여부
-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파급도 등을 감안하여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지원내용

- 공연비, 경연대회 참가지원비, 정기연습비, 기타 운영관련 경비 지원

사업평가 결과반영

- 사업성과 부진 사업은 다음연도 지원 제한
 - 지원사업 선정 후 경기도의 승인 없이 경비의 배분 및 사업내용을 변경
 -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한 경우, 보조금 부적정 집행 및 회계처리기준 미준수
 - 사업실적 및 정산결과 등 허위보고, 자부담비율에 의한 자체예산 미부담
 - 사업계획 대비 성과부진 사업, 성과분석표 미제출한 경우 지원제외
- 3년 이상 지원된 사업과 기 사업과 동일한 사업 신청 시 미지원
 - 단, 자체성과분석 결과, 성과가 탁월하고 그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 계속 필요한 경우와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에 한하여 반영

지원계획 공고 : 2018. 4. 5【목】

- 해당문화원에 공문(E-Mail)으로 공지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18. 4. 17(화) 오전 10:30 / 경기문화재단 3층 강의실
- 참석대상 : 해당지역 문화원 담당자, 민속보존단체 관계자
- 주요내용 : 지원계획, 신청방법, 회계처리기준, 모니터링 등

사업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8. 4. 10(화) ~ 2018. 4. 23(월)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 E-Mail접수 (인트라넷을 통한 접수만 허용)
- 신청서류 : 사업비 지원신청서(별첨), 사업계획서(별첨), 단체 소개서(별첨)

선정 및 교부

- 선정기간 : 2018년 5월 첫째 주중

지원결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

- 사업비 교부 : 도연합회 사무처가 지원결정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서 등을 문화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자금교부결정

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 도연합회 사무처에「실적보고서」제출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서식 1]
- 도사무처는 사업비 정산 및 자체성과평가 실시
 - 평가기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심사하고 필요 시 현지 조사 실시
 - 적합 판단 시 정산결과 확정 후 통지, 부적합한 경우 시정·반납 등 필요한 조치

V 사업의 성과평가

수행상황 점검

- 주 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해당문화원은 도연합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사업의 수행상황을 도연합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VI 동사업 추진 경과

동사업 평가 및 향후 방향 모색

1. 개최 근거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15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제정할 것을 정함
- 소위원회의 구성은 2015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회장의 권한으로 위임됨

2. 협의 주요 내용

- 지원사업의 몇 가지 원칙 (안)
 - 가. 문화원을 통한 공모신청과 문화원으로서의 보조금 지급
 - _ 지방문화원의 지역 민속예술보존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 _ 지방민속예술보존회와의 네트워크 확대 및 공고화
 - 나. 경기도민속예술제 수상의 형평성 제고
 - _ 대상 및 최우수상에 편중된 지원 규모 분산
 - _ 동일작품 지원 기간 3년 원칙

3. '17년 지원 현황

○지원대상

- 2016년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입상 10개 지역
- 평택, 과천, 김포, 이천, 화성, 양주, 군포, 포천, 안성, 오산

○지원 사업비

- 40,000천원(도비 40,000천원, 자부담 등 0)
- 10개 지역 각 3,600천원 지원

○평가

- 지방문화원이 주관하여 각 지역의 전통민속예술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명분 확보
- 문화원과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네트워크 협력 구조를 보다 세심하게 설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
- 선정 지역 문화원과 민속보존단체의 연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의 컨설팅 기능과 능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 민속예술제와의 연계를 위한 사업지원 기간 조정 및 연장
- 지원금 확대가 된다면 보존단체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됨

VII 사업추진과 운영평가

1. 경기도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지원을 위한 소위원회 개최

○일 시 : 2018. 4. 2(월) 13:30 ~ 14:30

○장 소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의실

○안 건 : 경기도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지원사업 모니터링 방향과 원칙



2. 2018 우수전통민속보존지원사업 모니터링 현황

지역문화원	날짜	장소	사업명	모니터링 요원
고양문화원	8/10	진발마을회관 지하연습실	진발두레 농사소리	차문성
광명문화원	10/28	광명시민체육관 대리석광장	철산리 두레농악	정하완
광주문화원	.	엄미리 마을	엄미리 장승제	정창래
김포문화원	10/2	김포함상공원 야외무대	조강치군패놀이 및 대명향배띄우는소리	양경직
동두천문화원	11/3	소요산 야외공연장	탐동상여회다지소리	최영희
시흥문화원	.	정왕동 전수소	시흥향토민요 전승사업	백도근
양주문화원	.	상여회다지 전수회관	양주들노래	정창래
용인문화원	10/12	포곡읍 경안천변	포은 정몽주 천장행렬 재현	황수근
의정부문화원	11/7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	녹양동 버들개농요	최창근
평택문화원	9/8	평택호 예술회관 앞	평택 어업요	염상균

3. 모니터링 결과

긍정적인 평가

- 전통의 가치를 인정받게 됨
- 전통의 명맥 유지 가능성 확보
- 구성원간의 즐거움과 자부심
- 지역민들과의 소통 · 화합 도모
- 지역민의 애향심 및 자긍심 고양
-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 청소년들의 호기심 유발
- 문화전통의 새로운 인식 전환
- 문화원과 보존회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함

문제점 (개선할 점, 건의 사항)

- 참가자들의 고령화
- 회원들 동원의 어려움
- 예산의 부족
- 공간의 부족 (연습장, 창고 등)
- 행정적 지원 필요
- 공무원들의 수동적 대응에 대한 아쉬움
- 지도 강사의 지위 확보 필요

4. 2018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운영평가

● 총평

- 지방문화원이 주관하여 각 지역의 전통 민속예술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
-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규정에 근거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향후 지속적인 지원구조가 마련됨
- 경기도 민속예술제 수상 팀 중 대상과 최우수상이 제외된 상위 10개 지역이 선정됨에 따라 지역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됨
- '시·도 매칭 사업'으로의 재 전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네트워크 강화 모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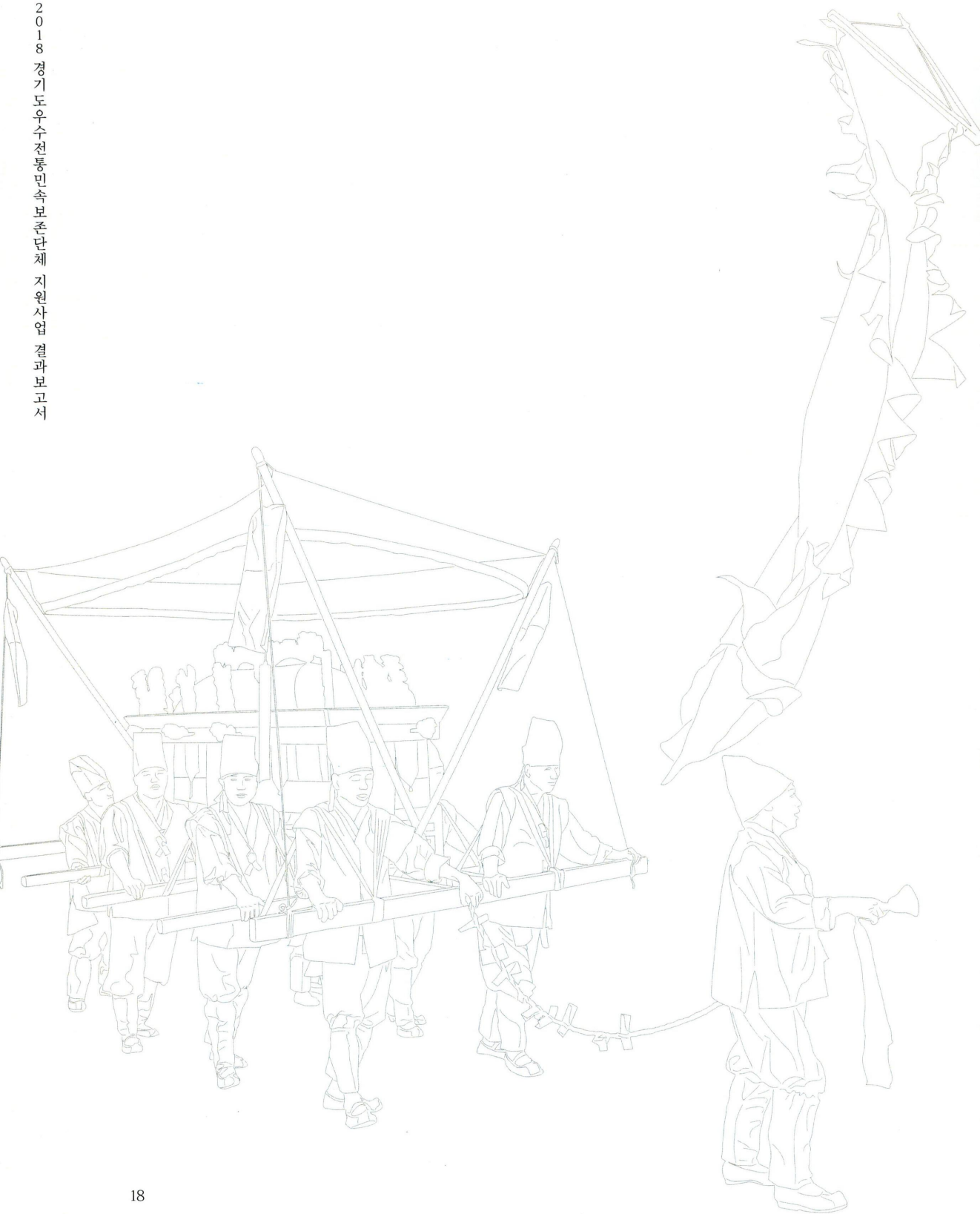
- 문화원과 경기도문화원 연합회의 지방문화원 협력네트워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으나, 보다 세심한 네트워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지역민족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구조이나, 행정적인 부분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문화원 기획역량의 결합이 점차 증대될 수 있는 구조의 사업으로의 전환 필요
- 지역과 지역 간 민속 문화예술 교류 네트워킹 아이템 개발 필요
- 문화원 내 향토문화연구소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민속예술에 대한 고증과 발굴을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전통의 명맥을 유지해야 함

● 모니터링과 컨설팅

- 선정된 지역의 문화원과 민속보존단체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도연합회 차원의 교육과 컨설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바탕으로 현장의 추진현황과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자료집이 필요

● 개선 및 건의사항

- 지원금이 확대되면 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도를 높이는 것과 같은 이유들로 보존단체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됨
- 공무원들의 의식 노력 부족 및 수동적 대응 문제 해결과 더불어 행정적 지원의 증대가 요구됨
- 참가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전통 계승의 문제에 대하여, 청년들의 민속예술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상해야 함
- 자긍심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연습 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관련 기관들의 값진 협조가 필요



VIII 참여문화원 현황과 추진 실적

고양문화원	진발두레 농사소리	성석농악 진발두레 보존회
광명문화원	철산리 두레농악	광명농악보존회
광주문화원	엄미리 장승제	엄미리 장승제 보존회
김포문화원	조강치군패놀이 및 대명항배 띄우는소리	김포조강치군패 보존회, 대명항배 띄우는소리보존회
동두천문화원	탐동상여회다지소리	탐동상여회다지소리 보존회
시흥문화원	시흥향토민요 전승사업	시흥향토민요 보존회
양주문화원	양주들노래	양주들노래보존회
용인문화원	포은 정몽주 천장행렬 재현	포곡민속보존회
의정부문화원	녹양동 버들개농요	의정부녹양동버들개민속보존회
평택문화원	평택 어업요	평택민요보존회

1. 고양문화원

작품명_ 진밭두레 농사소리

유래_ 진밭마을은 옛날 신라가 삼국통일을 위하여 고구려로 향하던 중, 이 지역을 지나다가 말이 모두 밭에 빠져서 진격을 못하고 결국 모두 밭에서 내린 후 말을 끌고 걸어서 이 지역을 지나가야 할 정도로 흠이 찰지기로 유명하였는데, 그때부터 이곳을 진밭이라 불리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만큼 우리 진밭마을의 농사일은 더 힘이 들었고, 그 고단함을 이겨내기 위하여 마을 농부들은 두레를 결성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두레패에서 논농사를 지을때 논에서 선소리꾼과 농부들이 서로 소리를 주고 받으며 흥을 돋우며 서로서로를 격려하며 단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후 조선시대 및 일제 강점기 때에도 계속 유지되어 왔으며, 그 후 진밭마을의 이름을 따서 두레의 명칭을 진밭두레패로 사용을 하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발굴경위_ 진밭마을에서 십 수대를 살아오며 실제 소리를 하며 농사를 짓던 어르신들은 현재 대부분 고인이 되셨으며, 이렇게 우리 마을의 진밭 두레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께서(고 신천희 님, 및 현 생존하고 계신 신유희/41년생,이계희/44년생,정준섭/28년생) 마을의 후배들에게 소리를 전수해 주시면서 발굴 유지되었고,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민속학자이신 박전열 교수님으로부터 고증을 받았습니다.

특징_ 농사소리는 옛 조상들께서 논농사를 지으며 이어져 내려오는 가락으로 1)모찌기소리, 2)모내기소리(열소리), 3)김매기 소리로 농사의 진행 단계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여름철 김매기 소리에는 1)땀다, 2)홀소리소리, 3)꽃방아타령, 4)상사도야, 5)우후야, 6)몸돌까지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모내기 소리인 열소리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순차적으로 소리꾼과 농부들이 소리를 주고 받으며 유희성 보다는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통일성 있게 모를 내고 다 같이 아픈 허리를 잠시 필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소리의 꺾임이 많아 흥이 절로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놀이시기_ 모찌기소리와 모내기 소리는 봄, 농사 개시 철에 하였으며 김매기 소리는 여름철 논에서 김매기 할 때 하였습니다.

구성_ 농사소리를 이끌어 갈 선소리꾼과 농부들, 흥을 돋을 수 있는 잭이와 농사준비를 하는 황소 및 쟁기와 씨레, 논에 물대기를 하는 용두레, 농부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광주리, 항아리, 함지박 아낙네와 기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행과정_ 기수와 잭이들을 선두로 농부들, 아낙네들, 그밖에 농부들이 입장한 후, 논에서 1)모찌기소리, 2)모내기소리(열소리), 3)김매기 소리를 선소리꾼과 농부들이 주고 받으며 농사일을 합니다. 모를 다 내고, 김매기까지 중간에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이때 장난 상여놀이와 들녘에서 옛 어르신들이 꼴을 베며 하였던 낫치기 놀이를 보여줍니다.이 때 농기는 벼멸구를 떨어기 위해 논에서 농기를 휘둘러 벼모를 쓸어줍니다. 옆에서는 아낙네들이 준비한 셋참을 먹으며 용두레는 논에 물을 대고, 황소는 논을 갈고 씨레질을 합니다. 농사소리 중 제3단계인 김매기에서 몸돌소리를 끝으로 농사일이 마무리 됩니다. 김매기를 마친 농부들은 풍년가를 부르며 논에서 나온 후에 한바탕 신명나게 노는 뒤 꼴이를 끝으로 퇴장합니다.

1. 고양문화원

I. 사업개요

단체명_ 고양문화원

사업명_ 진발두레 농사소리

사업기간_ 2018.5.1.~11.30	사업장소_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진발로 13 (연습실)
사업비_ 총 3,500천원	보조금_ 3,500천원 (100 %)
사업비_ 총 3,500천원	자부담_ 0천원 (0%)
사업비_ 총 3,500천원	기타_ 0천원 (0%)

사업목적_ ○진발마을의 농사소리와 풍물가락의 계승 및 유지
○마을 주민의 단결 동기유발

사업 추진방법_ ○매주 금요일 오후 7시~10시, 진발마을회관 지하연습실에서 연습
○강습 및 연습대상은 40명이나 매회 참여인원은 15~20명, 행사를 앞두고
되면 1개월 전부터 30~40명 참여 연습
○경기도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이 없는 기간에도 연습은 계속
○강습내용
- 초급 장구강습, 희망자에 한하여 태평소 특별강습
- 풍물 연습 - 농사소리 연습 (모찌는 소리, 열소리, 김매기 소리: 떴다,
홀소리, 꽃방아 타령, 상사도야, 새쫓는 소리, 몸돌소리)

추진실적_ 1. 매주 금요일 풍물교실에서 연습 시행하였음
2. 6/16 고봉동 노인잔치 축하공연 참여
3. 9/19 행주문화제 공연 참여
4. 10/1 고양시민체육대회 지역대표로 입장식 공연 참여
5. 매주 풍물교실 운영으로 연주 실력 향상됨
6. 농사소리 연습으로 우리의 소리 계승 유지

사업성과_ ○진발마을에 전승되어 오고 있는 농사소리가 자칫 사라지기 쉬운 여건에
서 매주 모여 연습을 통해 전통의 계승과 공연능력을 높이며
○농악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강습을 통하여 연주역량 증대
○농악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마을 주민들의 단합에 기여

II.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기	사업 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3월 1일	2018 마을지신밟기	3월 2일	마을 지신밟기 행사 실시 (마을관내 20개 가정)	
매주 금요일	농악 풍물교실에서 2시간씩 농악 연습	매주 금요일	농악 풍물교실에서 2시간씩 농악 연습시행 (농사소리연습)	
5월 초	고봉동 경로잔치 행사 공연	6월 18일	고봉동 경노잔치 행사에 축하공연 시행 (참여인원 20명, 관람인 원 약 1,000명)	
8월 24일	마을단합대회 축하공연	취소	마을 단체 관광으로 대체 되면서 행사 취소	
9월 9일	행주문화제 참여 공연	9월 11일	행주문화제 공연 시행 및 길거리 행사 참여	
10월	고양시민체육대회 지역 입장식 공연	10월 3일	고양시민체육대회 지역 입장식 선두 행렬공 연	

III. 사업추진성과

- 고양시 및 관내 특히 진발마을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대동단합에 기여
- 진발마을의 전통 계승과 공연 능력 제고
- 농악에 관심있는 지역주민에게 강습을 통해 참여의식 및 공연능력 부여

Ⅳ. 자체평가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매주 금요일 연습 후 간식을 제공함으로써 유대강화와 사업참여도가 높아짐. 본 사업의 추진으로 무엇보다 진발두레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 점이 회원 모집이나 연습에서 활력소가 됨

○예상의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회원들이 연로하고 질병으로 다수가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공백이 컸음
- 회원들이 대부분 생계형 직업을 가지고 있어 행사 동원이 어렵고 참여도가 낮음. 출연시 경제적 보상 등이 필요해 보임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진발두레가 재창설된지 2019년에 100주년이 되므로 10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결속을 다지고 연습을 통한 기능향상 및 신규 회원 확보가 관건임
- 해외 공연 추진 등 목표를 설정하여 참여의지와 연습 강화 가능

○본 사업이 시민들(사업대상)에게 미치는 영향 등

- 점차 사라지고 있는 전통 농요에 대한 관심과 보존가치를 높임
- 연수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성석동보다 일산 등 도심에서 연수기회를 높일 필요가 있음

○본 사업이 문화원과 보존회 관계개선에 미치는 영향 등

- 여름 냉방이나 겨울 난방, 장마철 벽지 보수 등 연습실 유지비가 지원이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간식비와 소모품비 및 공연 지원에 따른 비용을 보조해 주므로 그나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고양문화원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참가 인원 및 교통여건에 비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하고 있음

○보존회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 정월대보름 행사를 기획 시행하여 지역 신문 광고, 고양시 공보물 및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어 고양시에서는 상당히 인지하고 있는 수준

- 행사 시 2 천 명 정도의 관람객이 운집하고 있으나 지속성이 떨어져 일산 등 도심에서 정기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지원되는 보존회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시민들과 보존회의 접근성 등)

- 지원을 대폭 늘려서 100년 전통의 진밭두레가 활성화되어 고양시의 자랑거리로 존속되기를 바라고 있음, 특히 진밭두레가 소속하고 있는 고봉동(성석동, 설문동, 문봉동, 지영동, 사리현동)의 주민들의 기대가 큼

V.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인터뷰)

○민속보존회 발전 방향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해야하는 부분 등

- 두레의 사전적 의미는 공동의 노동조직으로 상호협력을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농촌지역의 촌락단위를 말한다. 농번기의 힘든 과정을 넘기고 이를 노랫소리와 풍물로 값진 노동을 기원하는 진밭두레 소리는 도시화과정에서 사라져가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이다. 따라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등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전래될 필요가 있다. 경기도문화원 연합회에서의 지원 역시 바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 진밭두레 농사소리는 모찌는 소리, 모내기 소리, 김매기소리(땃다, 홀소리소리, 꽃방아타령, 상사도야, 새쫓는소리, 몸돌소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내기 소리인 열소리는 길고 우렁차며 꺾임이 많아 구성진 점이 특색이며, 김매기 소리 중 꽃방아타령은 경쾌하고 흥겨운 가락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동일한 것이 없으므로 반드시 경기도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만큼 가치가 큰 소리임. 문화재 지정을 위한 절차나 방법을 진밭두레보존회에서 추진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어려우므로 경기도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임.
- 농사소리를 지도하고 계신 이계희 선생(전 보존회장, 현 명예회장)도 75세의 고령이시므로 후계자 양성이 시급해지고 있음.
- 농요나 풍속이 언젠가 중단될 것을 대비해 공연 외 구체적인 지도방법이나 소리를 영상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촬영하여 전승하는 사업을 구상중으로 이의 지원도 절실함.

1. 고양문화원

○문화원과의 관계 및 유지에 관하여 등

- 진발두레 회원들이 고양문화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어 문화원의 소식 및 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고양문화원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고양시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유일하게 고양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진발두레를 보존하기 위한 지원은 미흡한 상태이며 일반 풍물패나 농악대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어 진발두레보존회원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유서깊은 전통을 유지 보존하려는 의지로 임하고 있음.

사진 자료

본 사진은 2018년 8월 10일 금요일 성석동에 있는 진밭두레 마을회관 지하에서 약 20여명이 모여 10월 고양시민의 날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는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지원 금액을 통해 간식과 차량 등 지속적인 연습을 위한 기초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 두 가지의 개선점이 있는데 첫 째, 무엇보다 무보수로 자원봉사하는 전수자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책임감이 더해질 것이며, 두 번째로는 성석동 진밭에서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월 1회 정도 일산같은 도심에서 공연 혹은 전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향후 경기도 무형문화재로의 등재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음.



1. 고양문화원

2018 경기도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 광명문화원

작품명_ 철산리 두레농악

유 래_ 450여년 전부터 광명시 소하리 철산리 학온동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두레농악은 농사철에 주로 행하여졌다.

1년 중 정월대보름, 단오, 칠월칠석 백중에 많이 치고 놀았던 두레농악은 추석이나 설에는 집집마다 지신을 밟아주고 가가호호, 무병장수를 빌어주고 마을의 안녕과国泰民安을 기원하였다. 두레농악은 들에 나갈 때 치던 길놀이(장원진)와 논에서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소리와 춤을 추었으며 심신을 달래며 일체감을 조성하였다.

발굴경위_ 광명시는 경기 서남부에 위치한 시민 35만의 도시로 1981년 시 개청이후 91년부터 전통민속에 대하여 발굴하기 시작했다.

91년, 광명농악 93년 구름산도당놀이, 98년 아방리줄다리기, 2002년 아방리농요, 2011년 철산리디딜방아 액막이놀이 등을 발굴하였으며 2016년 철산리 두레농악을 발굴하게 되었다.

특징_ 철산리 두레농악의 특징은 두레와 농악이 어우러져 노동의 지친심신을 신명으로 이끌어 일에 능률을 올리며 나눔과 소통으로 복지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놀이시기_ 연중 정월대보름을 기점으로 10월까지 주로 농사철에 행하여 졌다.

구성_ 농부, 농악대, 마을사람들, 소리꾼, 깃발 등으로 일하고 소리하는 놀이형식이다.

진행과정_ 들나가기- 모찌고 모심기- 논매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I. 사업개요

단체명_ 경기도 무형문화재 20호 광명농악 보존회

사업명_ 제 2회 철산리 두레농악 발표회

사업기간_ 2018. 9. 1~10. 28	사업장소_ 광명시민체육관 대리석광장
사업비_ 총 3,500천원	보조금_ 3,500천원 (100 %)
사업비_ 총 3,500천원	자부담_ 0천원 (0%)
사업비_ 총 3,500천원	기타_ 0천원 (0%)

사업목적_ ○전통 민속놀이의 전승 보존과 민속에 대한 관심제고

○지역 문화예술 창달 및 시민 애향심 고취

사업추진방법_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철산리두레농악 발표회
진행

○광명농악보존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참여자를 구성하여 진행

○광명농악대축제와 연계하여 전통민속놀이의 활성화 도모 및 시민 접근
성 향상

추진실적_ ○철산리 두레농악 발표회를 통한 철산리 두레농악에 대한 홍보효과 및
인지 확대

○농악에 대한 인지 재고 및 향유층 저변 확대

사업성과_ ○농악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예술 발전에 기여

○전통 민속놀이를 통한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

○학생농악 등 일반사회문화로 광범위하게 놀이문화를 확산

2. 광명문화원

II.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기	사업 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4월	사업계획서 작성	4월	사업계획서 작성	
5월	보조금 입금 확인	5월	보조금 입금 확인	
7월	광명문화원, 광명농악보 존회 1차 회의	7월	광명문화원, 광명농악보 존회 1차 회의 진행	
8월	광명문화원, 광명농악보 존회 2차 회의(담당자)	8월	광명문화원, 광명농악보 존회 2차 회의 진행(담당 자)	
9월	연출자 계약 리플렛 업체 계약 1차 홍보(문자, 메일 등)	9월	연출자 계약(임웅수) 리플렛 업체 계약 (알리자닷컴) 1차 홍보(문자)	
10월	모니터링 일정 조율 2차 홍보	10월	모니터링 일정 조율 2차 홍보(거리홍보 및 광 명소식지, 홍보매체 활용)	
11월	정산보고서 작성	11월	정산보고서 제출	

III. 사업추진성과

열악한 민속보존단체로서는 독자적인 발표회를 실행하기 힘든바 적은 보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아 광명에서 이루어지는 광명농악대축제에서 함께 참여하여 철산리두레농악을 보여줌으로서 광명시민의 농악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좀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광명농악보존회에서 보여주는 두레농악은 굿머리, 돌림벽구, 앞당산벌림, 칠채(오방진), 뒷당산벌림, 짝짝이, 가세벌림, 사통백이, 원좌우치기, 네줄백이 좌우치기, 명석놀이(허공치기), 개인놀이, 무동놀이, 인사굿, 퇴장굿의 원형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의 완성도 높은 작품을 광명농악대축제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어서 농악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였으리라 생각이 든다.

IV. 자체평가(인터뷰)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적은 사업비를 지원 받아 두레농악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꾸준히 연습할 수 있어서 두레농악의 명맥을 유지해나갈 수 있다는 점.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두레농악만의 리플렛을 만들지 못함.

두레농악의 발표회가 10월28일로 언론 보도와 현장 외의 시민, 학생들의 반응을 피드백 모니터링 할 시간이 없었다.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단체 뿐 아니라 가능성이 보이는 개인이나 청소년에게도, 일반 시민에게도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농악은 예전부터 일반농민들이 즐겼고 향유했다. 그리고 작품을 연구하고 발굴할 수 있는 후속지원도 있길 바란다.

○본 사업이 시민들(사업대상)에게 미치는 영향 등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인 농악을 계승해줄 수 있

2. 광명문화원

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향유할 수 있고 후손에게 물려 줄 끼리를 줄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본다.

○본 사업이 문화원과 보존회 관계개선에 미치는 영향 등

옛것을 보존하고 미래의 문화를 발굴해야 하는 두 단체는 항상 공생해야하는 관계로서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관계로 연계해 나가야 한다.

○보존회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꾸준한 발표회와 작품 발굴, 후진양성으로 인한 일반시민들에게 농악을 교육함으로서 다양한 곳에 전파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악을 홍보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지원되는 보존회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시민들과 보존회의 접근성 등)

광명시는 모든 동 주민들이 농악 팀을 갖추고 있어 농악보존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농악에 대한 의문점이나 교육에 대한 열망 등을 보존회를 통해 충족하고 있다.

V.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인터뷰)

※ 경기도무형문화재 20호 보유자 임웅수 보존회 대표와의 인터뷰



○민속보존회 발전 방향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부분 등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민속보존회 관련 문화를 발굴하고 개발, 보존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의 지원시스템이나 예산액을 대폭 수정하여 현실 가능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민속보존회 지원에 대한 문화원 또는 시(도)의회 조례 지정이 있었으면 한다.

○문화원과의 관계 및 유지에 관하여 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간의 업무와 서로간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먼저 존재해야 한다. 특히, 문화원 업무 중 전통 민속예술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이 필요하겠다.

각 지역에 있는 전통 민속보존회와 유대 관계를 돈독하게 하여 지역예술발전과 우수한 전통예술을 발전시킬 근간을 마련하는 후속사업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Ⅵ. 추진사업 성과물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보고서	사업정산보고서	1부	
		사업실적보고서	1부	
2	리플렛	철산리두레농악	1부	

2. 광명문화원

사진 자료

2018 경기도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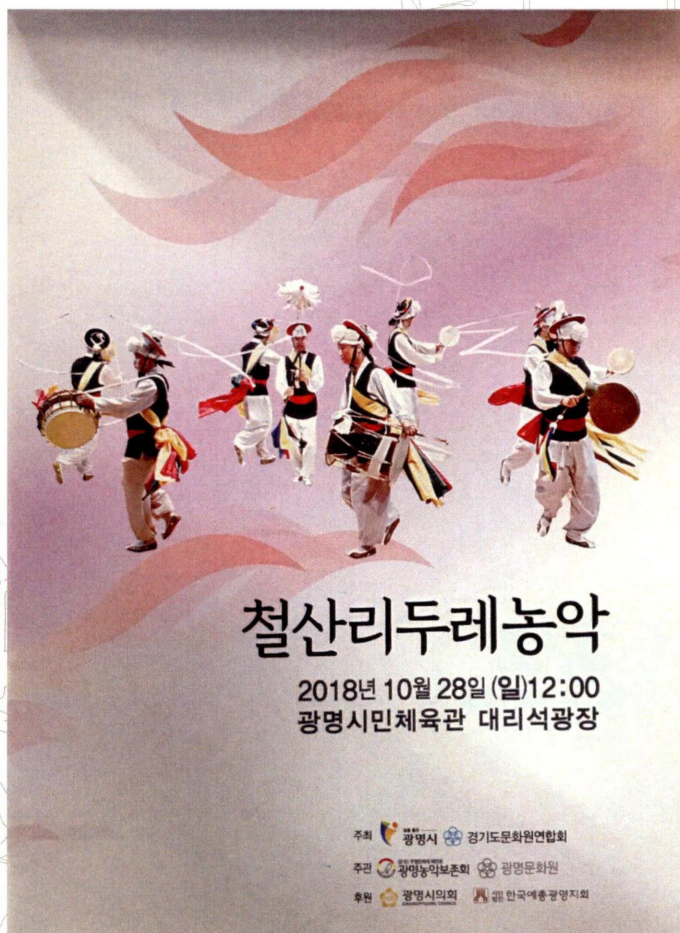




2. 광명문화원

2018 경기도우수 전통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3. 광주문화원

민속명_ 엄미리 장승제

유래_ 병자호란 시 청의 군사들이 남한산을 포위하고 있으면서 이곳 주민을 괴롭힌 데다 전란이 끝난 직후부터 전염병이 창궐하자 마을의 안녕과 전염병 침투를 막기 위해 민간신앙 차원에서 산신에게 치성을 드리고 장승을 마을 어귀에 세워 수호토록 한 데서 유래했다.

발굴경위_ 엄미리 장승제는 마을민간신앙 차원에서 병자호란 직후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일제 강점기와 6.25를 거치는 동안 잠시 중단되었으나 다시 복원되어 300년이 넘도록 유지되고 있다. 산신제로 출발한 장승제는 현재 장승제만 전승되고 있다. 1998년부터 광주문화원에서 장승제작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민속학자 김태곤, 김두하, 김수남, 황루시의 조사를 바탕으로 2009년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현재 광주시 지원으로 격년제로 장승제가 실시되고 있다.

특징_ 엄미리 장승제는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민속으로 경기중부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다.

나무 장승의 단순미와 자연미는 마을장승이 도달 할 수 있는 민중적 조형미의 압권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노표장승과 마을장승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엄미리 장승의 모습이 동경일류학회지에 그림으로 수록될 만큼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다. 300년이 넘도록 전승될 만큼 혹독한 조건을 견뎌낸 문화적 우성을 지니고 있으며, 솟대와 함께 세워지는 특징이 있다.

제례시기_ 엄미리 장승제는 병자호란(1636년) 직후부터 마을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음력 2월 초순 산신제의 일환으로 격년제로 실시되다 중부고속도로가 생긴 이후부터 장승제만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외지로 나간 주민들이 참석 할 수 있도록 음력 2월 첫 주에 해당되는 일요일에 격년제로 지내고 있다.

진행과정_

1. 제관 선출

마을에서 신앙 있는 어른으로 제사 일주일 전 마을사람들이 뽑는다. 옛날에는 제사 당일까지 몸을 정갈히 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않으며, 냉수에 목욕재제하는 등 금기사항이 많았으나 현재는 몸가짐을 조심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2. 장승재료 선정

제관은 마을사람들과 제사 전날 산으로 올라가 미리 장승목재(오리나무)를 선정한다.

3. 장승깎기

미리 골라 둔 나무에 소정의 제사를 지내고 나무를 베어 마을로 이동한 후 마을사람들이 전에 제작된 것을 참고로 장승을 깎는다. 약 2.5km 길이로 잘라 밑동치로 남장승, 윗동치로 여장승을 만든다. 장승 깎기가 끝나면 안면에 붉은 황토로 화장을 하고 턱수염을 단 후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란 글씨를 쓴다. 하단에는 서울70리 수원70리라는 노표도 기록한다. 솓대 2개도 함께 깎는다.

4. 장승세우기

각각 둔 2기의 장승을 마을 어귀에 세운다. 남장승과 여장승은 길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게 세운다. 이 때 솓대로 곁에 함께 세운다.

5. 제의

장승세우기가 끝날 오후 무렵, 미리 마련해둔 제수(사마색실과, 북어포, 백설리, 탕, 나물, 술)를 제단에 차리고 양편에 촛불을 밝힌 다음 제관이 제를 지낸다. 이 때 제관 중 1인이 축문을 읽고 3인이 번갈아 제를 지낸다. 제관의 제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이어 소원을 빌고 절을 한다. 제가 끝나면 백지 1장을 길가로 접어 시루에 꽃은 통북어 한 허리를 잡아매 장승 사모에 꽂는다.

6. 음복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먹으며 한 해의 복을 서로 빌어준다.

7. 폐회

마을의 안녕을 확신하며 해산한다.

3. 광주문화원

1. 사업개요

단체명_ 광주문화원

사업명_ 엄미리 장승제

사업기간_ 2018. 5. ~2018. 11

사업비_ 총 3,500천원

사업비_ 총 3,500천원

사업비_ 총 3,500천원

사업장소_ 엄미리 마을

보조금_ 3,500천원 (100%)

자부담_ 0천원 (0%)

기타_ 0천원 (0%)

사업목적_ ○마을 주민들에 의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엄미리 장승제 보존회〉를 창립하여 지역의 전통 민속이 지속되도록 지원한다.

○엄미리 장승제 보존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광주 지역의 우수전통민속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한다.

사업 추진방법_ ○2018년 4월 : 엄미리 장승제 지원사업 신청

○2018년 5월 1주~2주 : 엄미리 주민 간담회 및 사업취지 설명

3주~4주 : 〈엄미리 장승제 보존회〉 창립

○2018년 6월~8월 : 엄미리 장승제 재현

○2018년 9월 : 평가 및 정산

추진실적_ ○6월 28일 : '엄미리 장승제 보존회'창립

○11월 15일 : 엄미리 장승제 재현

사업성과_ ○'엄미리 장승제 보존회'창립을 통해 전승기반을 마련함.

○엄미리 장승제 재현을 계기로 추후 경기도 민속예술제 출전 가능성 타진.

II.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기	사업 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4월	엄미리 장승제 지원사업 신청	4월	좌와 동일하게 추진 됨.	
5월	엄미리 주민 간담회 및 사업취지 설명	5월	간담회 추진	
6월~8월	엄미리 장승제 재현	6월 21일	엄미리 장승제 보존회'창 립 장승제 재현은 더운 날씨 로 가을로 연기	
9월	평가 및 정산	11월 15일	엄미리 장승제 재현 평가 및 정산	

III. 사업추진성과

1. 엄미리 장승제 보존회 창립

일시 : 2018년 6월 28일

장소 : 엄미리 마을 회관



3. 광주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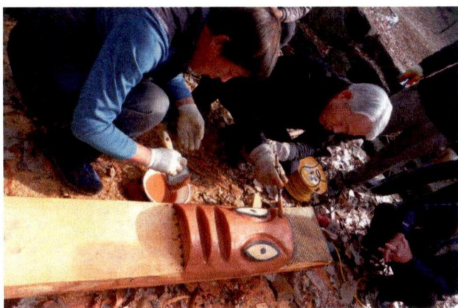
○ 어머니 장승제 보존회 명단

	이름	주소	생년 월일	연락처	직책	비고
1	유주영	엄미길 105번길 77	40.10.10	010-8557-5214	보존회장	노인회장
2	김주원	엄미리 72-56	50.4.26	010-5255-8362	부회장	이장
3	김영운	" 98	57.7.2	010-3705-5208	총무	전이장
4	공재범	엄미리 469	38.6.01	010-2007-5215	전승좌장	원로
5	명성철	" 27	48.8.21	010-5286-6825	회원	
6	이성열	" 58	47.9.20	010-5364-3534	회원	
7	김학문	" 103	55.7.20	010-5320-7979	회원	
8	공한석	" 105번길 21	58.4.25	010-3353-5906	"	
9	이창훈	" 400-1	65.2.1	010-5324-9888	"	
10	박창구	" 448	48.6.18	010-6522-0451	"	
11	정관채	" 154	54.6.27	010-6686-9988	"	
12	이범열	" 142	61.3.10	010-8996-6060	"	
13	남명호	" 158-21	48.6.21	010-9001-5224	"	
14	이연수	" 172-54	40.1.17	010-9291-1066	"	
15	이경식	" 186	53.10.12	010-2008-1572	"	상인회장
16	최종만	" 145-3	56.10.12	010-5352-1669	"	

2. 어머니 장승제 재현

일시 : 2018년 11월 15일

장소 : 엄미리 마을 어귀



IV. 자체평가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2018년 6월 21일 엄미리 장승제 보존회의 창립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엄미리 장승제 보존회 창립이후 회원들이 대다수가 남한산성 계곡의 유원지에서 음식 점 등에 종사하여 시기적으로 바쁜 계절이라 모임개최가 어려움에 따라 원래는 정월 보름 이후에 행사를 진행해야 하나 이번에는 지역여건상 한가해지는 시기인 11월 중에 소규모의 재현행사를 거행하게 되었음.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격년제로 재현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지역 여건상 많은 회원이 모일 수 있는 시기를 사전에 정하는 등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계획, 차질없이 진행하고 재현행사 진행과정도 상세한 고증을 통해 초기부터 전통 그대로 재현될 수 있도록 하며, 장승각기 전문인력 양성, 오리나무 등 자재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케 한다.

○본 사업이 시민들(사업대상)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전통문화 재현을 통해 지역민의 화합과 자긍심 고양

○본 사업이 문화원과 보존회 관계개선에 미치는 영향 등

문화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 등 관심제고를 통해서만이 지역 전통문화로 조기 착근할 것으로 판단

○보존회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미미한 수준임

○지원되는 보존회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시민들과 보존회의 접근성 등)

3. 광주문화원

V.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보존회 담당자 혹은 대표와의 인터뷰

○민속보존회 발전 방향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해야하는 부분 등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유주영님 보존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동네 행사로 2년에 한번씩 추진해온 일로서 지역민들의 협조 속에서 별다른 어려운 점은 없으며, 특히 자재조달과 장승깎기 도구, 운송관련 등은 순조로우며, 재정지원이 뒷받침되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함.

○문화원과의 관계 및 유지에 관하여 등

오랜동안 계승되어온 전통문화로 고증 등의 문제는 없으나, 문화원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보존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VI. 성과물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보고서	정산 및 실적보고(사진 첨부)		

사진 자료



3. 광주문화원

2018 경기도우수 전통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4. 김포문화원

작품명_ 김포조강치군패

유래_ 조강에는 조강포구, 마근포구, 강녕포구가 있었으며 조강의 각 포구 중에서 특히 조강포는 고려와 조선시대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모든 세곡선과 물화를 실은 배들이 개성과 한양으로 가기 위해 거쳐 갔던 유명한 포구였다. 이곳은 서해안에서 직접 선박이 정박했던 곳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으며 세 곳의 포구에서는 농악의 일종인 치군패*놀이가 성행했었다. 조강의 각 포구에서는 “치군논다”라는 말을 사용했으며 뱃사람들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용왕제를 시작으로 포구마당에서 연희형식의 치군놀이를 펼쳤으며 조강에 배를 타고 나고 무당이 허리에 끈을 매고 강 속으로 들어가 용왕제를 지내는 유래가 6.25전쟁 전까지 있었으며, 근대에는 치군패를 이끌었던故백봉만(1904년생)씨와故서기동(1909년생)씨가 상쇠를 맡았고 2000년대까지는 당시 포구에서 살면서 어른들의 치군패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던故김성복씨(1931-2012)가 상쇠로 명맥을 유지하다 현재 김용태(1959년생)씨가 상쇠로 치군패가락을 보존하면서 이어져 오고 있었다.

발굴경위_ 6.25 이후 분단의 영향으로 조강포구는 민통선 지역이 됐다. 포구에서 살았던 80호의 주민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마을과 포구도 사라졌으며 현재 조강은 남북접적지역으로 선박과 사람의 출입이 끊어졌다.

6.25전쟁 전까지 조강포구에서 살았던 김성복(1931년생)씨를 통해 치군패놀이가 50년 동안 실낱 같이 남아 있었는데 2008년 치군패를 알고 있는 김성복씨를 통해 가락을 채보하고 김성복씨와 함께 조강포구에 살면서 용왕제와 치군패를 보았던 신효철(1933년생) 노인회장을 만나면서 용왕제와 치군패를 구술을 토대로 발굴했다.

특징_ ○조강에 있는 강녕포구, 마근포구, 조강포구에 중에서 특히 중심역할을 했던 조강포구는 조선시대에는 어업활동과 서해안에서 마포로 올라가는 모든 선박들이 정박하는 항만의 기능을 했던 곳으로 연희형식의 치군패가 성행했다. 치군패는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두레패가 아니다. 뱃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용왕제와 포구마당에서 연희형식의 놀이를 했던 곳으로 예전에는 상모와 오무 등까지 했다고 한다. 그리고 소고를 하고 춤을 추는 사람들을 여자가 아닌 젊

은 청년들 중에서 뽑아서 색동저고리를 입혀서 판을 벌이면 꽃밭을 이루었다고 한다.

○용왕제는 무당이 지냈던 무굿 형태에서 유교형식의 용왕제로 변화했다.

○치군패의 가락의 특징은 처음 시작할 때 일채를 “갱 갡 갡 갡 갡개개개개개개개개”시작으로 이채가락인 “개갠 개갠 개갠 개갠 개갠”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시작된다. 사채는 가락이 인근 마을 보다 화려하며 칠채와 육채가락은 같다. 칠채가락을 시작하기 전에 뽕가리 도입가락은 옷다리 가락의 북소리인 점고가락과 같다. 칠채 도입가락은 “갱갱 갡갱 갡 갡”북으로 하면 “둥둥 둥둥 둥 ~ 둥”이 된다.

○치군패에서는 현재 젊은 청년층을 뽑지 않고 마을 아주머니들이 색동저고리를 갖추어 입고 소고놀이를 하고 있으며, 제금도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포구에서 힘차게 놀았던 형식으로 펼치고 있다.

○무등은 현재는 삼무등과 오무등을 하지 못하고 포구사람들이 자녀와 함께 치군패에서 놀았던 목마놀이를 하고 있다.

놀이시기_ 7월 백중날

구성_ 술안말과 서촌말의 농기싸움

진행과정_ 놀이마당 들어가기와 인사 - 세벌논매기 - 마을잔치 - 풍년제 - 농기싸움
- 기세배 - 화합의 한마당

4. 김포문화원

작품명_ 대명항배 띄우는소리

유래_ 옛날 김포의 한정포구(현재 김포대명항)에서는 낚배를 타고 날가지 뺨에 나가 고기잡이를 부르던 소리가 있었는데 만조 때 낚배 한척과 작은 배 두 척을 몰고 나가 젓굴 수문통까지는 돛을 내리고 노를 저어가고 썰물이 시작될 때 썰물의 힘을 이용해 돛을 올리고 노를 저어 강화도 초지 - 소교바위 - 상여바위 - 황미골 - 동검디를 통해 날가지 뺨로 나아갔다. 그 곳에서 낚배의 돛을 내리고 작은 배 두 척에서 그물을 양쪽으로 넓게 늘인 다음 낚배의 반대편에서부터 긴 막대기로 고기를 몰아 그물을 걷는 형태로 고기잡이를 하였다.

배를 출항하면서부터 노동요 형태의 소리를 하였는데 물살이 센 염하강에서의 배물이 방법과 향로가 노래 속에 담겨져 있어 모두 그 소리에 맞추어 대화를 하고 작업을 하였다. 그물을 늘일 때 많은 고기가 잡히기를 기원하고 고기를 몰 때 힘차게 구령을 하며 막대기를 바다에 내려치고 모두 힘을 합해 그물을 걷는 소리가 이어졌다.

만선을 하면 흥겹게 배타령을 부르며 귀향을 하였고 포구에 도착하면 선주와 마을 사람들이 마련한 잔치를 열며 모두가 흥겹게 한바탕 놀았다.

발굴경위_ 현재 마지막 소리 보존자인 이용호선생이 50여 년 전부터 뱃사람들을 따라다니며 그 이전 (약 100여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뱃소리를 배우고 익혀 꾸준히 불려오고 있었던 터에, 지역 전통문화를 연구해 오던 한세우 선생이 그 소리를 보존하고 또한 널리 알리고자 발굴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영상으로 증언을 기록하고 검증하였다.

특징_ 김포 대명 앞바다는 다른 바다와 다르게 바다이면서도 강화도와 사이에 있어서 강(염하강이라 불리움) 같은 곳이기도 하다. 여기선 밀물과 썰물, 그리고 물살의 속도가 곳곳이 다름을 이용해 뱃길을 정하고 그 경로로 바다에 나아갔다. 또한 큰 배 한 척과 작은 배 두 척을 이용하여 그물질을 하는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이 지역만의 독특한 방식이 이루어졌다.

I. 사업개요

단체명_ 김포문화원

사업명_ 김포조강치군패보존회 및 대명항배 띄우는소리보존회 운영지원

사업기간_ 2018. 5. 1~12. 5

사업장소_ 김포

사업비_ 총 3,500천원

보조금_ 3,500천원 (100%)

사업비_ 총 3,500천원

자부담_ 0천원 (0%)

사업비_ 총 3,500천원

기타_ 0천원 (0%)

사업목적_ ○사라져가는 김포의 전통민속예술인 치군패 전승의 사명을 잇기 위해 발족한 김포시 조강치군패보존회 운영지원

사업 추진방법_ ○ 조강치군패 보존회 연습 지원

○조강치군패 악기 보충 구입

○대명항배 띄우는소리 보존회 연습 지원

○대명항배 띄우는 소리 공연 지원

추진실적_ ○조강치군패 보존회 기량 유지

○대명항배 띄우는소리 공연 지원

사업성과_ ○조강치군패 및 대명항배 띄우는소리를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 마련

○김포만이 내세울 수 있는 독특한 전통문화로 지속가능한 계승발전 시킴

4. 김포문화원

II.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기	사업 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5월 1일 ~ 6월 15일	2018 중봉문화제 조강치 군패 공연을 위한 연습	5월 1일 ~ 6월 15일	2018 중봉문화제에서 시 민들에게 조강치군패 시 연을 통해 김포 전통민속 예술의 우수성 홍보	
7월 1일 ~ 10월 2일	대명항배 띄우는소리 공 연을 위한 연습	7월 1일 ~ 10월 2일	명항 배 띄우는 소리 공연 및 경기도무형문화재 보 유단체 인정 심의를 위한 현지 조사 대응	
		1월 1일 ~ 12월 5일	대명항배 띄우는소리 소 개 및 설명 책자 발간	

III. 사업추진성과

○김포의 전통민속예술인 조강치군패 및 대명항배 띄우는소리는 이미 유실됐던 아픔이 있었다. 조강치군패는 몇몇 뜻 있는 지역 전문가들에 의해 발굴 복원이 된 것을 보존회를 결성해 전승의 길을 열었다. 대명항배 띄우는소리는 그 소리와 놀이를 아는 사람과 기록이 모두 사라졌지만 이용호 명인 한사람만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 보존회를 운영하고 있다.

○김포문화원은 두 보존회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해 왔으나 지원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던 터에 '경기도우수민속예술단체지원'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활동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조강치군패 보존회는 자발적으로 매주 2회 꾸준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악기 보강을 통해 열정을 담아낼 수 있었다. 아울러 2018 중봉문화제의 특별공연으로 시민들에게 김포전통민속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심을 유도할 계기를 마련했다.

○대명항배 띄우는소리 보존회는 이 사업을 통해 공연 개최에 꺾여 있는 의지를 되살려 가을 정기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또한 년초 신청했던 경기도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심의를 위한 현지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김포의 사라질 위기를 겪다 부활한 전통민속예술에 작은 활력의 숨결을 불어 넣는 희망적, 상징적 성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IV. 자체평가(인터뷰)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조강치군패놀이보존회와 대명항 배 띄우는 소리 보존회는 설립 역사가 오래 되지 않아 지역 내에서 크게 알려지지 않고 있고, 전폭적 지원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사업추진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보존 회원들의 가슴에 열정이라는 씨앗을 남긴 점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대 시민 공연으로 인해

4. 김포문화원

김포의 우수 전통 민속예술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제고시켰다고 평가된다.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 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작은 예산으로 작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운영에는 크게 기여할 에너지는 없었다. 공연에 지도 강사를 섭외할 수밖에 없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강사비의 일부 밖에 충당할 수 없어 많은 고민이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예산 안에서 움직이는 터라 보존회가 공연이나 다른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주저함이 느껴졌다. 조강치군패는 연습 장소 섭외에 장애가 많이 따라 계획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었다.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김포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예산이다. 문화원 자체 예산이 워낙 부족하여 성과 및 결과를 초라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V.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인터뷰)

▶양경직 위원

조강치군패보존회 활동이 필요한 점과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이현주 조강치군패보존회 회장

보존 회원들은 모두 열정과 사명감으로 뭉친 사람들이다. 우리들은 개인 사비를 들이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따르고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우리 보존회원들 대다수가 김포 월곶이라는 시골에 살고 있어 활용할 연습장소가 많지 않다.

그 중에서도 월곶초등학교 대강당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하나, 교장선생님이 학교 운영위원회 핑계까지 대면서 대관을 해 주지 않고 있다. 지역과 상생해야 하는 학교임에도 지역 전통 민속을 외면하고 멸시하는 태도에는 끓던 열정이 한 번에 식어버리는 감정을 느낀다. 이 과정은 시와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적극적이진 않다.

▶양경직 위원

김포시에서 지역 전통 민속예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뒷받침해야 할 노력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안호석 총감독

민속 예술보존 단체가 지속적이고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의 인식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마치 갑과 을의 관계에서 사무적 처리만으로 발전을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원 단체 등에서 담당 공무원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양경직 위원

김포시 혹은 경기도에 바라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명옥 대명항 배 띄우는 소리 보존회 사무국장

시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보가 있다면 빠르게 알려주고 대응할 수 있게 해 주길 바란다. 수동적 대응으로 보존 단체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수도 있다. 충분한 예산 지원에도 목마르다.

VI. 추진사업 성과물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보고서	-----		
2	책자	대명항배띄우는소리 자료집		
3	프로그램			
4	포스터			

4. 김포문화원

사진 자료

2018 경기도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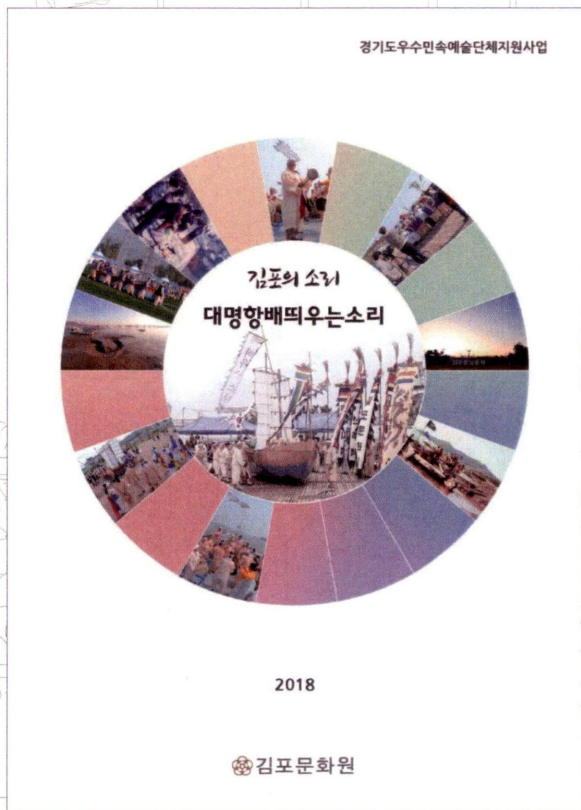




4. 김포문화원

2018 경기도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5. 동두천문화원

작품명_ 탐동상여회다지소리

유래_ 탐동은 동으로 왕방산, 남으로 천보산, 북으로 소요산으로 둘러싸인 두메산골로서 이조마지막 왕후였던 윤비의 생부인 윤판서를 운구하였던 상여를 탐동 낭모루에 놓고 가는 것을 계기로 유래되어 왔음

발굴경위_ 1980년대 초 고장의 토박이신 김수근(작고), 윤창노(86세), 김상우(83세) 세분의 선각자에 의해 발굴, 현재에 이르고 있음.

특징_ 1. 달구는 3, 5, 7 개로 하는데 1개에는
2. 사위를 골탕먹임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자성하도록 함
3. 외나무다리
4. 마지막 달구에서 흥을 겸한 짜배기 율동은 탐동에서만 지켜온 회다지를 위한 춤이라 할 수있음

놀이시기_ 매년 8월 대동놀이시

구성_ 상제 3, 사위 2, 안상제 3, 딸 2, 선소리꾼 1, 상여 및 회다지꾼 20, 영정 1, 건포 1, 만장 12, 문화원기 1, 보존회기 1, 대회출전기 1 등 총 47명

진행과정_ 제1과정 ~ 제4과정(내용 별지 작성)

I. 사업개요

단체명_ 동두천문화원

사업명_ 탐동상여회다지소리 보존회 재현공연

사업기간_ 2018. 5. ~ 10.

사업장소_ 소요산야외음악당

사업비_ 총 3,500천원

보조금_ 3,500천원 (100%)

사업비_ 총 3,500천원

자부담_ 0천원 (0%)

사업비_ 총 3,500천원

기타_ 0천원 (0%)

사업목적_ ○탐동상여회다지소리 재현공연을 통하여 우리고장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있음

사업추진방법_ ○재현공연기획 및 준비회의

○재현공연 연습

○보존회원 민복 구입

○재현공연 개최

추진실적_ ○재현공연기획 및 준비회의 : 사업기간중 총 5회

○재현공연연습 :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4회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보존회원 민복구입

사업성과_ ○지역문화창달,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 전수

○보존회원 통일성있는 공연복 착용으로 수준높은 재현공연개최

5. 동두천문화원

II.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기	사업 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5월	5월 18일(금) 18:00 재현공연기획(준비)회의	5월	5월 18일(금) 18:00 재현공연기획(준비)회의	
7월	7월 20일(금) 18:00 재현공연기획(준비)회의	7월	7월 20일(금) 18:00 재현공연기획(준비)회의	
8월	8월 17일(금) 공연용 민복구입	8월	8월 17일(금) 공연용 민복구입 60,000원*60벌=3,600,000 (※ 100,000원 할인) 합계 3,500,000원 공연복으로 사용계획	
10월 - 11월	10월 6일- 10월 27일 재현공연 연습 11월 3일 재현공연 개최	10월 - 11월	10월 6일- 10월 27일 재현공연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11월 3일 재현공연 개최 장소 : 소요산야외음악당	

Ⅲ. 사업추진성과

- 동두천시민 및 소요산을 찾은 관광객 2,000여명 관람
- 동두천의 우수전통민속문화의 계승 발전
- 통일성 있는 단체복 일괄구입으로 수준높은 재현공연 기반 마련

Ⅳ. 자체평가(인터뷰)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 지역의 전통문화(장묘) 계승에 이바지, 지역주민 화합.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 회다지소리 보존회 76명의 회원이 연간 2번의 공연으로 많은 예산 소요되나 지원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추진 중이오니 예산지원 요망합니다 .

○ 본 사업이 시민들(사업대상)에게 미치는 영향 등

○ 본 사업이 문화원과 보존회 관계개선에 미치는 영향 등

- *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

○ 보존회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 * 연 2회 정기공연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함.

○ 지원되는 보존회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시민들과 보존회의 접근성 등)

- * 신시가지 공연으로 청소년들의 호기심 유발시키고자 관심유도함.
- * 문화전통의 새로운 인식전환.

5. 동두천문화원

V.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인터뷰)

※ 보존회 담당자 혹은 대표와의 인터뷰 :

동두천 탐동 상여회다지소리 보존회 사무국장 박태규

○민속보존회 발전 방향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해야하는 부분 등

* 정기공연 1회시 회원의 소집훈련시 식비, 교통비 등 500만원 지원이 요망됨.

회원 인원 (남: 40명, 여: 30명)

* 탐동상여회다지소리 보존회 연 2회공연시 최소한 1000만원의 예산지원이 된다면
본 보존회의 정기공연 및 분기별 소집 연습시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문화원과의 관계 및 유지에 관하여 등

사진 자료



5. 동두천문화원

2018 경기도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5. 동두천문화원

2018 경기도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6. 시흥문화원

작품명_ 시흥향토민요

유래_ 시흥시 향토민요는 시흥시 전역에서 불리지던 민요

발굴경위_ 시흥향토민요는 국악인 박일엽이 금이동 신현돌, 월곶동 방연근, 방산동 김인상 등에서 상여소리 등을 채록 조사, 정리를 시작으로 시 전역에 산재한 전통소리를 발굴한 것이다.

특징_ 과거 시흥이 대표적 어촌이었지만 어로가 막히면서 퇴락한 신현동 새우개 마을의 어촌문화를 되살리는 데 앞장서는 노래이며 춤사위이다.

I. 사업개요

단체명_ 시흥문화원

사업명_ 시흥향토민요 전승사업

사업기간_ 2018. 6월 ~ 11월

사업장소_ 정왕동 전수소

사업비_ 총 3,500천원

보조금_ 3,500 천원 (100%)

사업비_ 총 3,500천원

자부담_ 0천원 (0%)

사업비_ 총3,500천원

기타_ 0천원 (0%)

사업목적_ ○도시화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향토민요를 살리고자 함
○시민들에게 전승 및 보존 시키고 향토애를 함양하고자 함

사업추진방법_ ○계층에 상관없이 시민들에게 전승
○바닷가 노래, 들노래, 상여소리 등을 강의
○시흥향토민요 가사집 강독

추진실적_ ○제27회 연성문화제 시흥무형문화유산 시연
○시흥 바닷가 노래 시흥(時興)배따라기 공연

사업성과_ ○7/29에 있었던 제27회 연성문화제 공연에서 시민들에게 시흥시의 노래를
선보였음 (수혜자 500여 명)
○시흥 바닷가 노래 시흥(時興)배따라기 공연에서는 향상된 실력으로 관객
의 큰 호응을 받았음 (수혜자 100여 명)

6. 시흥문화원

II.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기	사업 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6월	홍보 수강생 모집	5월	홍보 수강생 모집	
7월	전승교육 27회 연성문화제 공연	7월	승교육(주1회 3시간) 27회 연성문화제 공연	
8월	전승교육	8월	전승교육(주1회 3시간)	
9월	전승 교육	9월	전승교육(주1회 3시간)	
10월	전승 교육	10월	전승교육(주1회 3시간)	
11월	전승 교육	11월	전승교육(주1회 3시간)	

III. 사업추진성과

도시화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향토민요를 살리고자 전승 및 보존을 위해 시민들을 모집하고 시흥의 향토민요에 대해 배우고 내 지역의 전통을 익히며, 지역의 소중함과 애향심이 향상되고 공연을 통해 배운 것을 알려 전승에 참여하는 자긍심을 갖는 시간이었다.

시흥향토민요가 앞으로 시흥의 대표 민속예술이 될 수 있도록 문화원 자체에서도 지원사업을 할 것이며, 군자봉성황제처럼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IV. 자체평가(인터뷰)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시흥의 향토민요에 대해 배우고 내 지역의 전통을 익히며, 지역의 소중함과 애향심이 향상될 수 있었다.

○본 사업이 시민들(사업대상)에게 미치는 영향 등

실생활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 시흥향토민요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또한 전승사업을 통해 도시마을과의 네트워크 구축, 전통 민속을 보존할 수 있었고, 시민들에게는 애향심과 자부심을, 이주민에게는 향토민요를 통해 정주의식을 심어주었다.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앞으로도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시흥의 향토민요 전승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시민들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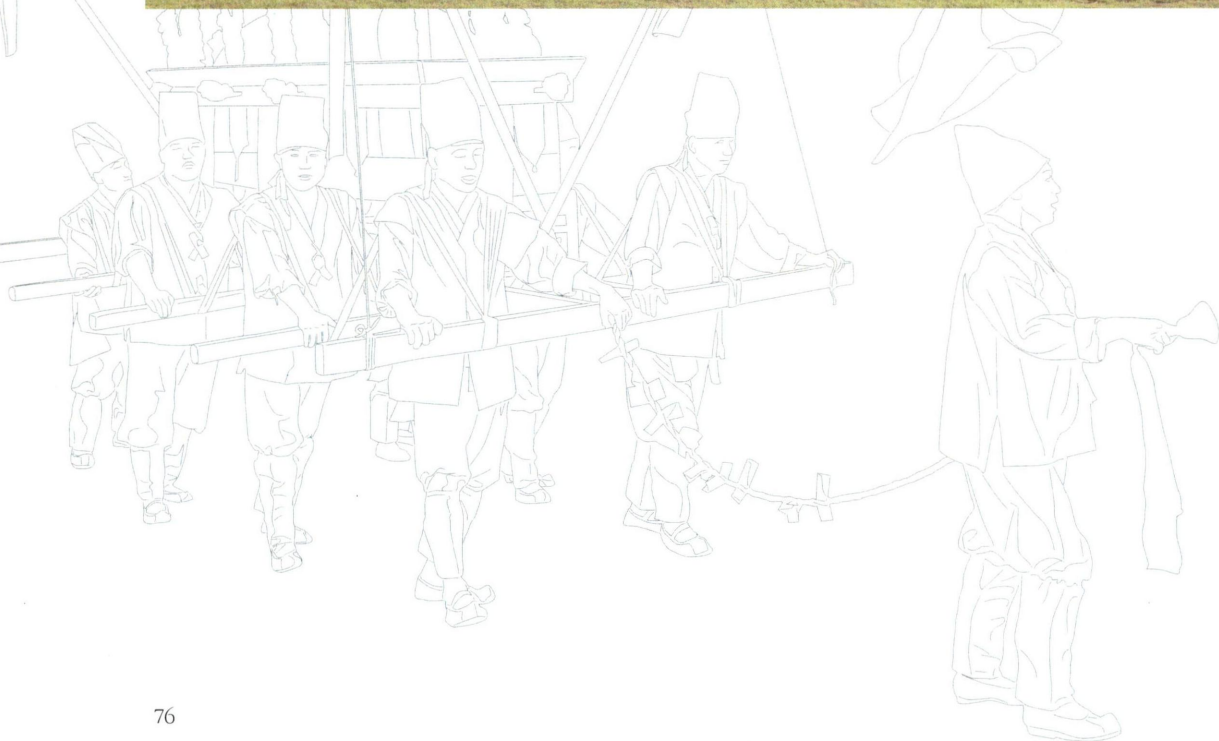
전승교육과 공연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많이 얻어내며, 시민들과 호흡하고 있다.

V.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인터뷰)

경기도 각 지역의 지역예술발전과 우수한 전통예술을 발전시킬 근간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됨과 동시에, 각 지역별 전통 민속 보존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등도 꾸준히 필요해 보인다.

6. 시흥문화원

사진 자료





6. 시흥문화원



시흥향토민요를 배우보세요!

재미있게 우리 마을의 전통 민요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즐겁게 배우고 공연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마을을 다니다 해록한 민요도 알려드립니다.
우리 마을의 민요를 배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일시 : 매주 수요일 16시 / 토요일 13시
장소 : 정왕동 전수소 / 시흥문화원
대상 : 누구나(부모와 자녀 환영)
수강료 : 무료
접수 : 시흥문화원 사무국 (031-317-0827)

※당첨한 사항은 시흥문화원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 시흥문화원

후원 :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도의회





7. 양주문화원

작품명_ 양주들노래

- 유래_ ○양주는 곡창지대가 풍부하여 예로부터 농사가 발달한 지역으로, 논농사를 둘러싸고 일과 관련된 노동요가 매우 발달할 수 있었으며
- 들노래소리를 전하고 있는 1930년대 출생 김병옥·김환익·허영이·황상복·박인병 등으로 볼 때 적어도 1900년대 초반에는 들노래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경기도 양주시 토박이 소리꾼의 소리』(2007년 문화관광부 전통 예술 복원 및 시연사업)
- 또한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조금씩의 차이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양주들노래와 유사한 소리를 이웃 고장인 파주, 고양, 동두천, 포천 등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양주들노래는 백석읍의 소리를 중심으로 하면서 광적면과 남면의 토박이 소리가 곁들여져 들노래의 다양성을 결정하였다.

- 발굴경위_ (1) 양주는 들이 넓고 쌀이 많이 나는 곡창지대여서 예로부터 노래와 놀이가 풍성하게 발달하였다.
- (2) 가멸진 문화적 환경이 다양한 노래를 만들어서 골골이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소리를 구현했다
- (3) 인심이 순후하고 소리로 문화를 만드는 창조력이 양주 들노래의 핵심적 내용이 된다.
- (4) 양주들노래는 백석읍의 소리를 중심으로 하면서 광적면과 남면의 토박이 소리가 곁들여져 들노래의 다양성을 결정하였다.

- 특징_ (1) 양주들노래는 지역적으로 황해도소리와 서울소리에 인접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소리가 어울리는 오묘한 소리가 우러나게 된다.
- (2) 수심가토리의 맛과 경토리의 뼈대가 혼용된 소리의 면모가 발현되는 점을 만날 수 있으며 소리의 결과 깊이를 만나는 특징이 있다.
- (3) 소박한 논농사와 함께 여러 가지 재미나는 소리와 놀이가 어울어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놀이시기_ 모심는 철부터 시작하여 애논파기 (호미로), 두벌논매기 (손으로), 삼동논매기 (손으로) 시기까지 두벌논매기나 삼동논매기때 논매는 소리를 한다.

구성_ (양주들노래의 구성)

소모는소리 -가래질소리- 모찌는소리 - 모심는소리(홍죽리,송촌말 열소리) - 논매는소리 1. 논바닥에 들어서면서 하는소리 2. 긴방아소리 3. 사도소리 4. 꽃방아소리 5. 훅훅이소리 6. 상사소리 7.새날리는소리 - 8.마당너구리

진행과정_ 입장 - 논만들기(가로10m 세로 6m)를 사각으로 만들고 그안에서 모심고 논매는 동작들이 모두 이루어짐) - 논옆 좌.우 양쪽 에 아낙들이 새참준비 할 간이부엌 만듬 - 소리꾼 무대좌측이나 우측에 풍물팀과 함께 10여명이 고정적으로 경연 - 끝나면 좌측이나 우측으로 퇴장한다.

소품위치 - 소1마리 논 의 좌나,우 배치
용두레 논 측면에 배치

7. 양주문화원

1. 사업개요

단체명_ 양주들노래

사업명_ 경기도우수민속예술단체지원사업

사업기간_ 2018. 6. ~ 11.

사업장소_ 양주들노래보존회(양주시)

사업비_ 총 3,500천원

보조금_ 3,500천원 (100%)

사업비_ 총 3,500천원

자부담_ 0천원 (0%)

사업비_ 총 3,500천원

기타_ 0천원 (0%)

사업목적_ ○회원들의 질적 향상 및 강습을 배우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전승을 하고자함.

사업추진방법_ ○ 사업지역: 양주시

○사업내용: 가래질소리,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논매는소리

○강습대상: 양주들노래 회원

○강습기간: 2018. 06 ~ 2018. 11

○강습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9시

○강습장소: 양주들노래보존회 강당

○사업참여자: 양주들노래 회원 54명 / 강사 박정화(1인)

추진실적_

구분	계획	달성
강습인원	총45명(남 20명/여 25명)	총54명(남 20명/여 34명)
강습강사	총 1명(여 1명)	총 1명(여 1명)
참여장소	1곳	1곳
교육횟수	24회	24회
총교육시간	48시간	48시간

-부뚜막축제 공연

-제12회 양주들노래 정기공연

-천일홍축제 공연

- 찾아가는 공연
- 유양초등학교 상설공연
- 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 공연

사업성과_ ○사업 완료에 따른 수혜자/모집대비 수료율: 100%

○교육참여자 만족도 및 효과: 100%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 100%

○사업효과: 양주지역의 모심는 소리와 논매는 소리를 발굴하고 전승

II.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기	사업 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6월 5일 ~ 11월	매주 화요일 강습 오후 7시 ~ 오후 9시 회원 45명 참여 강습내용: 가래질소리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논매는 소리	6월 5일 ~ 11월	매주 화요일 강습 오후 7시 ~ 오후 9시 회원 54명 참여 강습내용: 가래질소리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논매는 소리	
5월 ~ 10월	제12회 양주들노래 정기 공연 찾아가는문화활동 공연 부뚜막축제 공연 천일홍축제 공연 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 공 연	5월 ~ 10월	제12회 양주들노래 정기 공연 찾아가는문화활동 공연 부뚜막축제 공연 천일홍축제 공연 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 공 연	

7. 양주문화원

Ⅲ. 사업추진성과

○추진성과 : 옛 선조들의 농사의 삶속에서 일어나는 소리문화가 기계화에 밀려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의 귀중한 소리를 발굴 재해석하여 공연을 통해 재현

○사업추진 전·후 비교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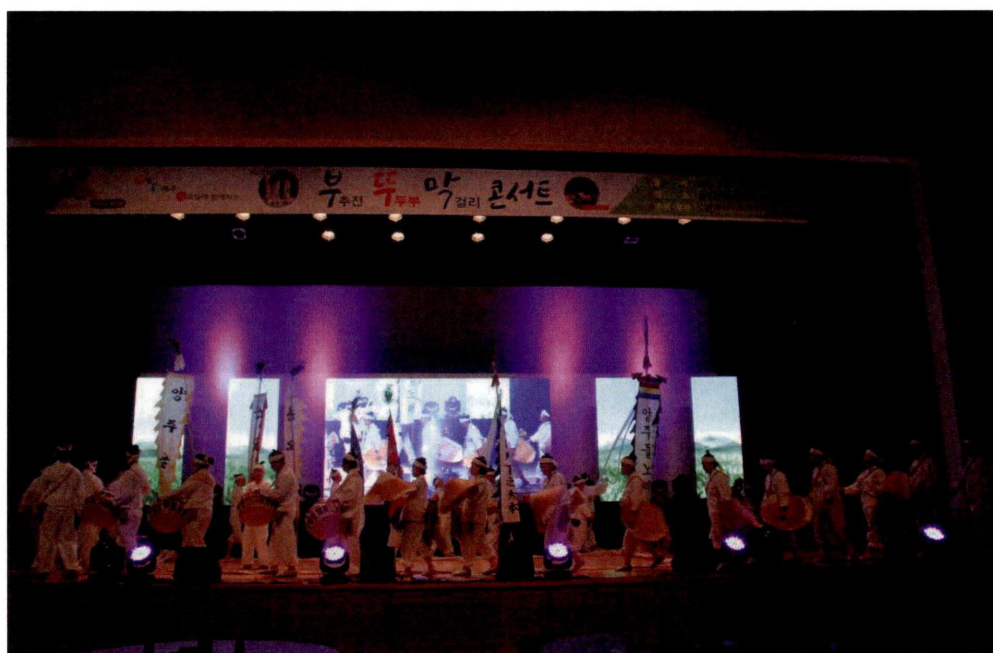
추진 전: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강습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추진 후: 이번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강습을 받는 횡수도 늘어나 들노래 회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며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진행됨

○ 사진자료



제12회 양주들노래 정기공연



부뚜막축제 공연



천일홍축제 공연

7. 양주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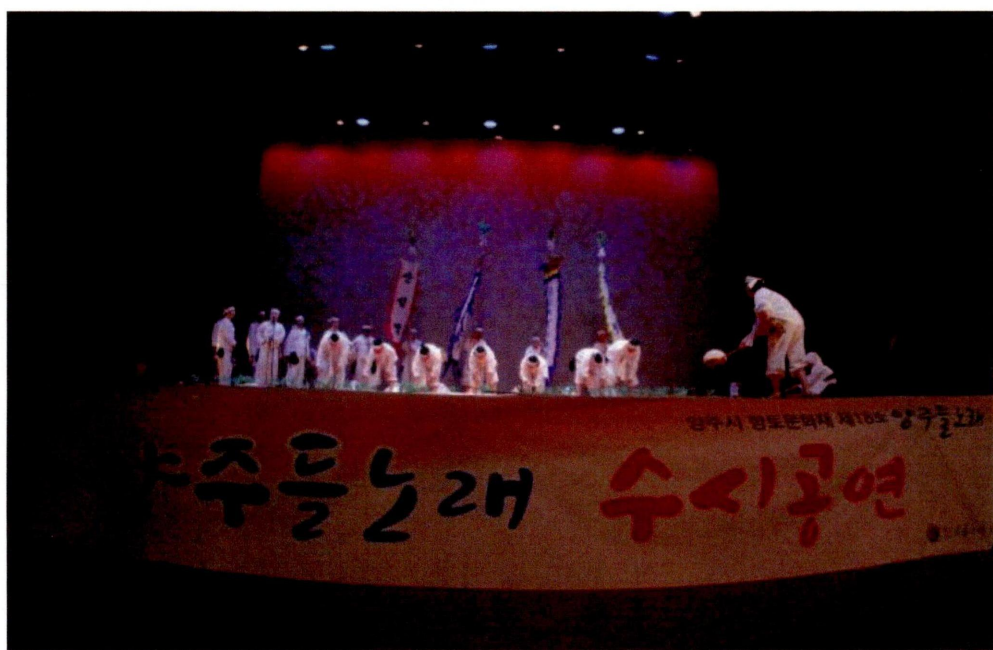
찾아가는공연



유양초 상설공연



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 공연



양주들노래 수시공연(광명시민회관)

7. 양주문화원



양주들노래 수시공연(오산맑음터공원)

IV. 자체평가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05월~12월 매주화요일 들노래강습 24회

03/17 초청공연 부뚜막축제 / 양주문예회관

05/06 제12회 정기 공연/ 양주별산대

09/13~14 제12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최우수상 수상)

09/16 천일홍축제 양주2동 시가지

09/18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VIP 효요양원

10/13 상설공연 / 유양초

10/13 상설공연 왕실축제 / 회암사지

10/20 양주들노래 수시공연 / 광명시민회관

10/27 양주들노래 수시공연 / 오산시 맑음터공원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회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음. 젊은 회원들은 직장생활 또는 가사로 바쁘기도 하지만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임.

노년층은 의사는 있으나 거동이 불편하고, 학생층은 공부를 해야 하는 분위기로 취미나 재능이 있는 학생도 오래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임.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현재 회원들은 취미에 부합하여 단체활동에 참여하지만 수익창출의 어려움으로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며, 현재 사업도 사업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팀만 지원이 되는 상황에 있으며, 예술제에서 10위안에 들어도 3년간만 지원한다는 규정과 다른 지역 공연은 지원이 없으며, 지원액수도 점차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추세에 있음. 등위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운영유지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문화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본 사업이 시민들(사업대상)에게 미치는 영향 등

양주들노래가 양주시 향토유적으로서 지속적인 전승 교육을 통하여 계승 발전함으로써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본 사업이 문화원과 보존회 관계개선에 미치는 영향 등

본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원과의 돈독한 유대관계 조성에 기여도 높아짐

○보존회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정기공연 및 상설, 수시공연 등 년 약 10여회 공연 및 민속제예술제 참가 등을 통해 시현하며, 시청, 문화원 소식지, 홈페이지(www.deullorae.com) 등 활용하고, 카페, 유튜브 등을 통해 참여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원되는 보존회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시민들과 보존회의 접근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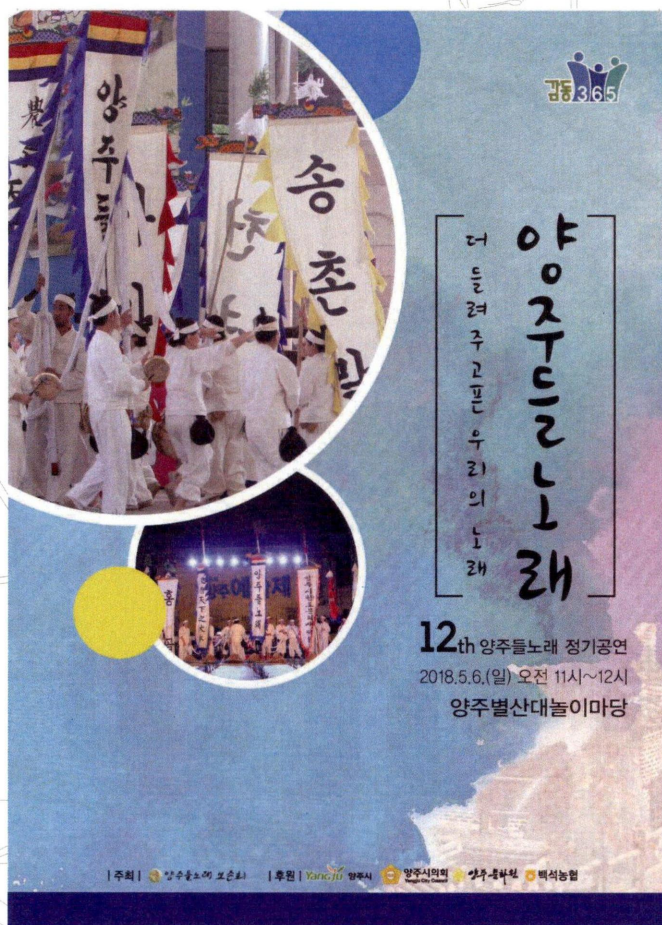
잊혀졌던 전통문화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하고, 젊은층들에게는 전통문화 향유의 기회

7. 양주문화원

V.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문화사업이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제고는 물론 전통문화 재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현 사업만 하더라도 사업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31개 시군 중에 10개 팀만 지원이 되는 상황이며 예술제에서 10위 안에 들어도 3년간만 지원한다는 제한된 규정 등과 다른 지역 공연은 지원도 없고 지원액 수도 줄어들고 있어서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바 등위에 관계없이 지역의 전통문화 보호 차원에서 기본적인 예산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사진 자료



7. 양주문화원

2018 경기도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8. 용인문화원

작품명_ 포은 정몽주 천장행렬

유래_ 천장행렬은 포은 선생의 묘역을 개성의 풍덕에서 지금의 위치인 모현면 능원리로 천장하는 과정을 재현한 행사이다. 예부터 죽음에 대한 의식은 관혼상제의 사례(四禮) 가운데 가장 엄숙하고 정결하게 받아들여졌다. 장례가 사자(死者)를 지하로 모시는 일이라면 천장(遷葬)은 묘를 옮기는 절차이다.

조선시대 사대부가에서 중시 여겼던 성리학 의식인 관혼상제(冠婚喪祭) 중 상례의식을 재현한 것으로, 용인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세거문중들의 장례행렬을 재현한 놀이로 어느 집안에서 상(喪)을

당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장례를 치름. 특히, 70년대까지만 해도 90세 이상의 장수 노인을 상여에 태워 모시는 장수 축하 상여놀이가 행해졌다고 한다.

발굴경위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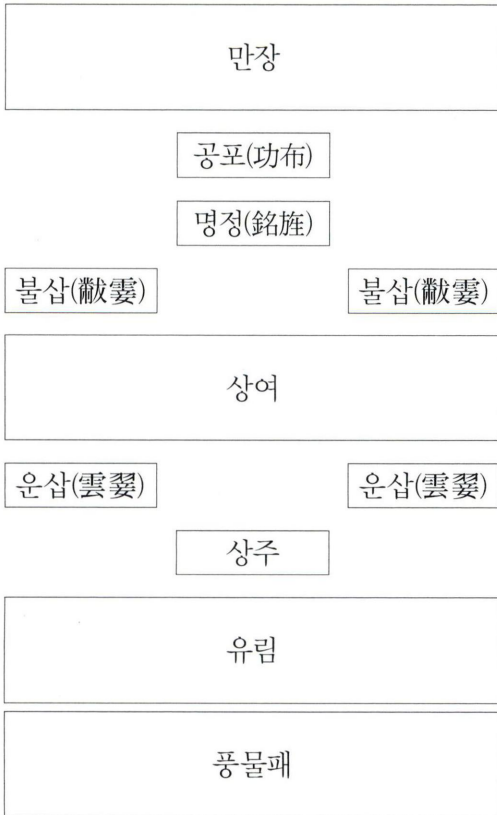
■ 취타대(吹打隊): 취타는 불고 치는 악기들을 중심으로 임금의 거동이나 군대의 행진,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연주하며 행진하는 형태의 음악대이다. 나발, 나각, 태평소, 소금, 향피리의 관악기와 운라, 용고, 장구, 자바라, 징, 북, 팽과리 등의 타악기로 구성된다. 행진 지휘자를 등채라 한다.

■ 집례관: 장례식을 집행하는 총 책임자

■ 영기(令旗): 조선시대의 군기(軍旗)로 청색 삼각기에 붉은빛의 '승'자를 새겨 붙인 것과, 적색(赤色) 사각기에 검은색의 '승'자를 새겨 붙인 것이 있다.

■ 포도대장(捕盜大將): 조선시대 치안을 담당하던 포도청(捕盜廳)의 장관으로 종2품 무관직이다.

■ 포졸(捕卒): 조선시대 포도청에 소속되어



있는 병사

- 당상관(堂上官): 조선시대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무신은 정3품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품계를 가진 벼슬아치
- 당하관(堂下官): 조선시대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훈대부(通訓大夫), 무신은 정3품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의 품계를 가진 벼슬아치
- 개(蓋)·우산(雨傘): 천장행렬이 진행되는 동안 내리는 비나 따가운 햇볕을 가려 망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함.
- 영여(靈輿): 영혼(靈)을 모시는 가마(輿)라는 뜻으로, 혼백과 신주를 상징하는 위패를 모신다.
- 방상씨(方相氏): 네 개의 눈이 달린 탈을 쓰고 상여 앞에서 칼을 휘두르며 상여가 가는 길에 잡귀를 물리쳐 망자의 저승길을 깨끗이 개척해 주는 역할을 함.
- 공포(功布): 발인시 명정과 함께 세우고 가는 삼베 형겅으로, 망자의 관을 깨끗이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님.
- 명정(銘旌): 망자의 관직, 성씨 등을 기록하여 상여 앞에 들고 가는 깃발로 붉은 천을 사용하며 가루나 은물 등으로 흰색 글씨를 씀.
- 불삽(黻裳)·운삽(雲裳): 상여의 앞뒤에 세우고 가는 제구(祭具)로, 불삽은 썩자 형상을 그린 널조각에 긴 자루가 달려 있고, 운삽은 구름무늬를 그린 부채 모양의

8. 용인문화원

널판이다. 망자의 육신과 영혼을 악귀와 도깨비로부터 보호하고 쫓는다는 주술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상여(喪輿): 망자를 장지로 운반하는 제구(祭具)로 몸채는 단청식 채색을 하고, 4귀에는 기둥을 세워 위로 포장을 쳐 햇빛을 가리며, 상여 뚜껑에는 연꽃·봉황 등으로 장식한다. 상여들은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다.
- 상주(喪主): 장례의 주관자로, 상주는 죽은 사람의 장자가 되고 장자가 없으면 장손이 됨.
- 만장(輓章): 망자를 추모하기 위해 지은 시나 글귀를 비단이나 천에 적어 깃발을 들고 상여의 뒤를 따르는데 문체에 따라 만사(輓詞)와 만시(輓詩)로 구분됨. 장례가 끝나면 빈청(殯廳)에 보관

구성_ 발인-노제-앉은걸음-징검다리-외나무다리-우물-논두렁길

I. 사업개요

단체명_ 용인문화원

사업명_ 포은 정몽주 천장행렬 재현

사업기간_ 2018.09.28.~10.13.

사업장소_ 용인시 포곡읍, 모현읍

사업비_ 총3,500.3천원

보조금_ 3,500천원(99.9%)

사업비_ 총3,500.3천원

자부담_ 0.3천원(0.1%)

사업비_ 총3,500.3천원

기타_ 0천원 (0%)

사업목적_ ○천장행렬은 포은 선생의 묘역을 개성의 풍덕에서 지금의 위치인 모현면 능원리로 천장하는 과정을 재현

○예장(禮葬, 國葬 수준의 장례)의 예를 갖추었다는 기록에 따라 이를 재현하는 행사로, 조선시대에 왕이나 왕비가 돌아가셨을 때 치르던 국장행렬의 장엄한 광경을 재현

사업추진방법_ ○지역주민 중심으로 상여놀이 재현

-상여꾼(포곡민속보존회), 취타대(용인문화원), 풍물패(모현읍)

○지역의 각계 각층 참여

-용인의용소방재(집례관 등 관직), 한국외대(만장행렬)

서원고등학교(영기, 영정, 영여 운반 및 만장행렬)

추진실적_ ○상여놀이 연습 진행 : 9.28~29일, 10월11~12일 총 4회

○포은 정몽주 천장행렬 재현

- 일시/장소 : 10.13(토) 10시~11시 / 능원초등학교→포은묘역

- 포곡민속보존회, 문화원취타대, 용인의용소방대, 한국외대 모현풍물패, 서원고등학교, 용인적십자봉사단 등 200여명 참가

사업성과_ ○사라져가고, 맥이 끊긴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데 큰 의의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일심단결하여, 민족문화에 대한 이해와 저변 확대로 시민 화합의 장

○선조들의 삶의 역사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사는 후손들에게 삶의 흔적을 배우고 몸소 실천하는 교육적 효과

8. 용인문화원

II.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기	사업 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10월 13일	○일시 : 2018.10.13.(토) 10:00~11:00 ○장소 : 능원초등학교운동장 → 포은정몽주묘역 ○상여놀이 구성 - 참가인원 : 40명 - 역할 : 선소리꾼 1명, 길잡이 1명, 상주 2명, 상여꾼 36명 ○천장행렬구성 -포곡민속보존회 (상여소리, 상여운구) -용인문화원 취타대 -모현읍풍물패(길놀이) -172연대 장병(기수, 포 줄, 방상씨, 운삽, 불삽, 영정, 명정, 공포, 영여) -용인의용소방대 (행렬안전유지) -한국외대 용인학수강생 (유림행렬)	10월 13일	○일시 : 2018.10.13.(토) 10:00~11:00 ○ 장소 : 능원초등학교운동장 → 포은정몽주묘역 ○상여놀이 구성 -참가인원 : 40명 -역할 : 선소리꾼 1명, 길잡이 1명, 상주 2명, 상여꾼 36명 ○천장행렬구성 -포곡민속보존회 (상여소리, 상여운구) -용인문화원 취타대 -모현읍풍물패(길놀이) -서원고등학교(기수, 포 줄, 방상씨, 운삽, 불삽, 영정, 명정, 공포, 영여, 만장) -용인의용소방대 (행렬안전유지) -한국외대용인학 수강생 (만장행렬) -용인적십자봉사단 (만장행렬)	

III. 사업추진성과

○예장의 예를 갖춘 천장행렬의 재현

- 취타대(吹打隊): 취타는 불고 치는 악기들을 중심으로 임금의 거동이나 군대의 행진,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연주하며 행진하는 형태의 음악대이다. 나발, 나각, 태평소, 소금, 향피리의 관악기와 운라, 용고, 장구, 자바라, 징, 북, 팽과리 등의 타악기로 구성된다. 행진지휘자를 등채라 한다.
- 집례관: 장례식을 집행하는 총 책임자
- 영기(令旗): 조선시대의 군기(軍旗)로 청색 삼각기에 붉은빛의 '令'자를 새겨 붙인 것과, 적색(赤色) 사각기에 검은색의 '令'자를 새겨 붙인 것이 있다.
- 포도대장(捕盜大將): 조선시대 치안을 담당하던 포도청(捕盜廳)의 장관으로 종2품 무관직이다.
- 포졸(捕卒): 조선시대 포도청에 소속되어 있는 병사
- 당상관(堂上官): 조선시대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무신은 정3품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품계를 가진 벼슬아치
- 당하관(堂下官): 조선시대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훈대부(通訓大夫), 무신은 정3품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의 품계를 가진 벼슬아치
- 개(蓋)·우산(雨傘): 천장행렬이 진행되는 동안 내리는 비나 따가운 햇볕을 가려 망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함.
- 영여(靈輿): 영혼(靈)을 모시는 가마(輿)라는 뜻으로, 혼백과 신주를 상징하는 위패를 모신다.
- 방상씨(方相氏): 네 개의 눈이 달린 탈을 쓰고 상여 앞에서 칼을 휘두르며 상여가 가는 길에 잡귀를 물리쳐 망자의 저승길을 깨끗이 개척해 주는 역할을 함.
- 공포(功布): 발인시 명정과 함께 세우고 가는 삼베 형식으로, 망자의 관을 깨끗이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님.
- 명정(銘旌): 망자의 관직, 성씨 등을 기록하여 상여 앞에 들고 가는 깃발로 붉은 천을 사용하며 가루나 은물 등으로 흰색 글씨를 씌.
- 불삽(黻囊)·운삽(雲鬘): 상여의 앞뒤에 세우고 가는 제구(祭具)로, 불삽은 卍자 형상을 그린 널조각에 긴 자루가 달려 있고, 운삽은 구름무늬를 그린 부채 모양의 널판이다. 망자의 육신과 영혼을 악귀와 도깨비로부터 보호하고 쫓는다는 주술적 의

8. 용인문화원

미를 지니고 있음.

- 상여(喪輿): 망자를 장지로 운반하는 제구(祭具)로 몸채는 단청식 채색을 하고, 4귀에는 기둥을 세워 위로 포장을 쳐 햇빛을 가리며, 상여 뚜껑에는 연꽃·봉황 등으로 장식한다. 상여틀은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다.
- 상주(喪主): 장례의 주관자로, 상주는 죽은 사람의 장자가 되고 장자가 없으면 장손이 됨.
- 만장(輓章): 망자를 추모하기 위해 지은 시나 글귀를 비단이나 천에 적어 깃발을 들고 상여의 뒤를 따르는데 문체에 따라 만사(輓詞)와 만시(輓詩)로 구분됨. 장례가 끝나면 빈청(殯廳)에 보관

IV. 자체평가(인터뷰)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포곡읍의 새마을회원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민속을 보존하고자 지속적으로 상여소리를 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구성원들간의 즐거움과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보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예상의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회원들이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있어 저녁시간에 연습하고 있지만 인원동원하기 어려움이 있고 연습할 장소가 마땅치 않음. 또한 연습 등에 드는 활동경비도 부족함.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현재는 상여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역의 민속을 발굴하여 보존 계승하고자 함.

○ 본 사업이 시민들(사업대상)에게 미치는 영향 등

지역민속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나아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지역에 대해 애향심 고취

○ 본 사업이 문화원과 보존회 관계개선에 미치는 영향 등

이전부터 포곡민속보존회와 용인문화원은 지속적으로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

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인해 더욱 밀접한 관계 형성

○보존회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주로 보존회원을 중심으로 인적 홍보를 하고 있으며, 출정식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보존회를 알림

○지원되는 보존회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시민들과 보존회의 접근성 등)

보존회가 지속적인 재현활동을 통해 민속의 전승과 계승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역 내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시민들과 호흡하고 있음.

V.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민속보존회 발전 방향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해야하는 부분 등

포곡민속보존회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민속의 맥을 잇기 위해 결성된 단체임. 지속적으로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참가하였으며,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다만 보존회원 대부분이 직업을 갖고 있어 모여서 연습을 하기가 어려우며, 연습공간이 없어 현재 천변 공터에서 연습을 하고 있음. 또한 연습이나 활동에 있어 필요한 경비 확보가 어려움.

경기도 차원에서는 보존회에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과 함께 이루어져야하며, 지속적으로 보존회와 민속을 재현할 수 있도록 지원방향 롤모델 및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노하우 등 공유.

○문화원과의 관계 및 유지에 관하여 등

용인문화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보존회가 잘 운영될 수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보존회는 용인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재현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8. 용인문화원

VI. 추진사업 성과물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리플렛	제16회 포은문화제 리플렛		
2	언론기사	지역 언론사 기사		
3	사진첩	천장행렬 재현 사진		
4	CD	천장행렬, 추모제례		



사진 자료



8. 용인문화원

2018 경기도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9. 의정부문화원

작품명_ 녹양동 버들개농요

유래_ 버들개 농요는 주로 농사철 모내기과 7,8월 김매기에 부르던 농요다. 우리나라 민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요는 일의 성격, 환경, 지역특성에 따라 불리는데 의정부는 산과 들이 펼쳐있어서 다양한 농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인근 지역인 포천, 연천, 파주와 같이 의정부 버들개마을은 메나리조의 농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버들개_ 농요는 농사일의 힘든 과정과 협동심을 자아내어 농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녹양동일대에 자리하고 있는 버들개마을에 보존회를 두며 이를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발굴경위_ 농민들은 힘들고 바쁜 일손으로부터 피로를 잊고 농률을 올리기 위해 노래를 부르며 일을 해 왔다. 이러한 노래를 농요라 하는데 들노래 또는 농사짓기 소리라고도 한다. 주제는 농사와 관계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협동심과 농률을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급격한 도시개발 및 산업화와 환경변화 등으로 조금만 더 방치하면 소중한 무형유산이며 지역의 개성있는 모든 농요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기도북부를 대표하는 의정부에서 농요를 되살려 우리의 농촌문화와 무형유산을 보존,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농요뿐만 아니라 그 소리에 맞춰 농사를 짓는 모습을 춤으로 엮어 각각 역할의 통일성과 협동심, 단결을 보여줘야 시연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연희자들의 협동심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징_ 대부분 풍물놀이가 기본바탕이 되는 민속놀이와 달리 버들개농요의 악기는 기본적인 구성을 받쳐주며 흥을 돋우는데에 쓰이며 모든 놀이가 노랫소리로 이루어져있다. 예전에는 김매는 소리에 중심을 두었다면 지금에 와서는 모심는 소리, 모내는 소리, 김매는 소리를 이어 타작과 풍년을 기원하며 추수하는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재미있고 구성지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힘과 흥을 돋우는 농부가 선소리를 하면 이를 받아 마을사람들이 하나의 목소리와 몸동작으로 농사일의 과정을 재현한다.

놀이시기_ 버들개 농요는 주로 농사철 모내기과 7,8월 김매기에 부르던 농요다.

구성_ 기수 10명 , 태평소 1명, 쇠 2명, 징 1명, 장구 6명, 북 6명, 선소리꾼 2명,
대감, 마님- 각 1명씩, 잡색 1명, 농부 18명, 동네사람들 7명

진행과정_ 입장(모를 심기 위해 동네사람들과 농부가 입장하여 대열한다.)- 모찌는 소리(모를 심기위해 모찌는 소리를 하며 모판에서 모를 찢다.)- 모심기(찢 모를 모심기소리와 함께 모를 심는다.)- 초벌논매기(초벌논매기소리와 함께 맨손으로 논을 맨다)- 두벌논매기(두벌논매기소리와 함께 호미로 논을 맨다- 모타작(수확한 모를 거두어 타작과함께 풍년가를 부른다.)- 대동놀이 및 퇴장(풍년의 기쁨을 대동놀이로 마무리하며 퇴장한다.)

9. 의정부문화원

1. 사업개요

단체명_ 의정부문화원 의정부녹양동버들개민속보존회

사업명_ 버들개농요 발전과 계승을 위한 연습과 공연활동

사업기간_ 2018. 4. 1. ~ 12. 5.

사업장소_ 의정부문화원, 의정부예술의 전당,
의정부신세계문화홀

사업비_ 총3,500천원

보조금_ 3,500천원 (100%)

사업비_ 총3,500천원

자부담_ 0천원 (0%)

사업비_ 총3,500천원

기타_ 0천원 (0%)

사업목적_ 2009년 창립하여 의정부를 대표하는 민속놀이를 보존, 발전, 계승하고 있는 단체로 2017년 의정부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더 활발히 활동을 확장하여 이어나가고 있다. 더 많은 의정부시민들과 후손들에게 우리의 전통민속문화예술을 알리기 위한 공연활동을 실시하고자 꾸준한 연습과 노력으로 문화예술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사업추진방법_ ○4월 ~ 12월 매주 악기, 춤, 소리 연습진행

보존회 회원들과의 소통 및 공연연습 진행

○10월 공연일정 및 장소협의

○11월 16일, 21일 공연진행

추진실적_ ○상반기, 하반기 3개월씩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 연습진행

○9월 초 하반기 정기모임시작

○9월 초 ~ 11월 중 소리와 악기, 춤 연습

○11월 16일 성모병원 '얼씨구나~ 절씨구나~'봉사공연

11월 21일 의정부가무악축제 공연

사업성과_ 정기적인 연습으로 보존회 회원들간의 소통과 관계가 원활해지고 돈독해졌으며, 공연연습을 통해 실력향상과 우리의 전통민속놀이인 의정부녹양동버들개농요를 다수의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좋은 성과가 있었음

II.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기	사업 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9월	의정부녹양동 버들개농요보존회 정기공 연	9월~ 12월	의정부녹양동 버들개농요보존회 발전과 계승을 위한 연습과 공연활동	지역 단체 와 합동 공연 진행

III. 사업추진성과

○공연을 향유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우리의 전통민속문화예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의정부시민으로서 우리고장이 보유하고 있는 향토문화재에 대한 자부심과 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음

○보존회 회원도 사업을 진행하며 다양한 전통예술을 행함으로써 기능적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시킴

9. 의정부문화원

Ⅳ. 자체평가(인터뷰)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지도 강사가 열정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 녹양동 노인회장이 노인회 사업 순위 1위로 정하고 소품 악기 기물 등 관리에 전 회원과 함께 전력을 기울인다. 전회원이 연습에서 출전까지 사물악기 농악 춤에 이르기까지 전원이 출연하여 열연을 한다.
- 보존회장이 생업 다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단원을 지도하고 지원하고 협조한다. 마을 출신의 공직자 등이 적극 지원하고 참여한다.
- 참여하는 농악단이나 협찬하는 무용수 등이 적극적이고 열정을 다한다.
- 의정부시청과 의정부문화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한다.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50여명 이상이 출연하는 시연단이라 수송 간식 휴식 용변 등의 문제가 있으나 다수 출연한 경험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동호인만으로 단일팀 구성에 문제가 있으나 전통 있는 인근의 고등학교 중학교의 지원으로 항상 협조와 지원이 가능하다.
- 상설 연습장이 마련되지 않았다.
- 보조되는 금액이 수일간 연습하고 장비와 기구 소품 등을 준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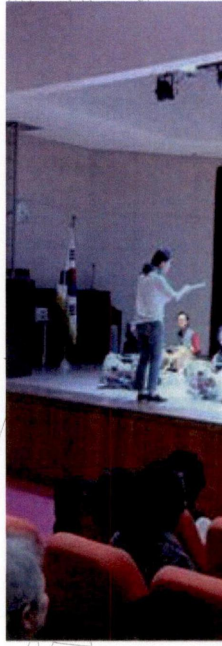
V.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인터뷰)

- 단장 지휘 하에 사물 농악기도 익히고 농악에 맞춘 춤도 함께 추며 동민과 하나 되어
임심도 순화하고 마을 분위기도 화기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 가고 있다.
- 상설 연습장의 필요. 연습 마당 300평과 실내 연습장이 필요.
- 기구와 소품 악기를 보관할 장소가 없음. 실내연습장과 보관창고 50평 필요
- 지도 강사의 지위 확보.
- 의정부시와 의정부문화원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무형 향토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적극 협조 요망.

9. 의정부문화원

사진 자료

2018 경기도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9. 의정부문화원

2018 경기도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10. 평택문화원

작품명_ 평택 어업요

유래_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는 바다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나루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으로 어장이 풍부하고 고기 종류도 다양하다.

자연스레 고기 잡는 어부들이 늘어나고 생계수단으로 신왕나루에서 시작. 강
화, 연평도까지 다니면서 고기를 잡기 시작했다.

고기잡이 배는 주로 중선배인 안강망 어선을 이용하였고 7~8명이 한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면서 뱃동사가 선창을 하면 어부들이 후창하는 방식으로 소리를
했다.

발굴경위_ 1973년 평택시 현덕면 아산만 방조제로 인하여 경기도와 충남을 잇는 바닷
길이 생기면서 현덕면 신왕나루에서 충남 당진, 삽교, 인천까지 중선배인 안강
망 어선들이 모두 어업에서 농사만 짓게 되었다.

평택시에서 지역문화를 찾고자 하던 중(2008년) 신왕리 마을에 어업을 하시던
인원환 보유자, 이의근 보유자를 만나 실제 고기를 잡으며 부르던 노동요를 채
록

특징_ 선후창 방식의 매나리, 토리권의 음악적 특징을 지닌다고 하지만 지리적으로 경
기 북부권과 충청권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소리의 종류나 음조적 등 그 세부적
인 특징은 다소 다르다. 특히 경기 남부지역에서는 유일할 뿐만 아니라 매우 독
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놀이시기_ 반농(半農)반어(半漁)인 신왕나루에서는 농사철과 한겨울 얼음이 얼어 성
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년 중 고기잡이를 하였고 농사철에도 물사리때는 고
기잡이를 하였다.

구성_ 육지에 정박한 배에 닻을 올려 노를 저어 고기를 잡기 위해 넓은 바다로 나간
다. 넓은 바다에 정박해 그물을 바다밑으로 던진다.

그물 무게에 의해 배가 기운다. 배에 중심을 잡기 위해 돌로 배 균형을 잡는다.
고기가 잡혔다면 그물을 뽑는다. 바디질로 고기를 퍼 올린다.

만선의 기쁨을 안고 육지로 돌아온다. 육지에서 기다리는 동네분들이 함께 맞
이하며 한데 어우러져 피로를 풀며 풍물을 즐긴다.

진행과정_ 어업요 소리, 장단, 행위순서로 진행하며

배위에서 닻을 감는다. 노를 젓는다. 그물을 풍긴다. 돌을 옮긴다. 그물 뽑기한다. 바디질 순으로 진행한다.

입장(모를 심기 위해 동네사람들과 농부가 입장하여 대열한다.)- 모찌는 소리(모를 심기위해 모찌는 소리를 하며 모판에서 모를 찢는다.)- 모심기(찢은 모를 모심기소리와 함께 모를 심는다.)- 초벌논매기(초벌논매기소리와 함께 맨손으로 논을 맨다)- 두벌논매기(두벌논매기소리와 함께 호미로 논을 맨다- 모타작(수확한 모를 거두어 타작과함께 풍년가를 부른다.)- 대동놀이 및 퇴장(풍년의 기쁨을 대동놀이로 마무리하며 퇴장한다.)

10. 평택문화원

I. 사업개요

단체명_ 평택문화원

사업명_ 2018년 경기도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사업기간_ 2018. 5. 1 ~ 9. 30

사업장소_ 한국소리터

사업비_ 총 3,500 천원

보조금_ 3,500 천원 (100 %)

사업비_ 총 3,500 천원

자부담_ 0천원 (0%)

사업비_ 총 3,500 천원

기타_ 0천원 (0%)

사업목적_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문화재인 어업요를 보존·전승하고 어린이들이 선조들의 어업노동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우리 시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

○평택의 전통민요 어업요를 그대로 재현하여 지역 민속문화를 보존·전승함

○지역민속문화의 보존으로 시민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 정체성을 확립함

사업추진방법_ ○사업지역 : 경기도 평택시

○장 소 : 한국소리터

○기 간 : 2018. 5. 1 ~ 2018. 9. 30

○주요 추진내용 : 어린이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평택민요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을 통해 평택시민·경기도민에게 민요의 우수성을 알림

추진실적_ ○어린이 교육영상 제작

○농악북, 징 등 악기 구매

사업성과_ ○지역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발전에 기여

○지역민들에게 올바른 지역문화를 알 수 있는 장을 마련

○사라져가는 지역문화예술을 보존·계승하고 지역문화의 저변 확대

II.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기	사업 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5월	기본계획 수립 어린이 교육영상 제작 정기 공연(5월 27일)	5월	기본계획 수립 어린이 교육영상 제작 정기 공연(5월 27일)	
6월	세부계획 수립 상설 공연	6월	세부계획 수립 상설 공연	
7월	홍보물 제작 상설 공연	7월	홍보물 제작 상설 공연	
8~9월	농악북, 징 등 악기 구입 상설 공연	8~9월	농악북, 징 등 악기 구입 상설 공연	

III. 사업추진성과

평택민요의 공연은 그 시작 전부터 관객들의 기대감 속에 진행된다. 이미 어떤 공연이 어떻게 펼쳐지리라는 것을 알고 온 관객이 많기 때문이다. 반복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처음 온 관객이라 하더라도 이미 다녀간 이웃에게 그 내용을 들어서 단원들의 분장과 악기 조율음만 들어도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간단한 퀴즈로 계란꾸러미를 선물로 주는가 하면, 어린이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채를 나눠주면서 분위기를 돋운다. 또한 막걸리와 사탕을 관객 사이로 직접 찾아가 나눠주니 관객들은 상여소리를 할 때 상여가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면 용수철처럼

10. 평택문화원

튀어나가 새끼줄에 돈을 꽂아준다. 대부분은 1만 원 짜리지만 5만 원 짜리 지폐도 몇 장 보인다. 이는 앞서 뱃소리를 할 때 고사상 돼지머리에도 참여하여 돈을 낸 사람들이 보여서 자연스레 이어진 결과이다.

관객들은 두레소리에 어깨를 흔들며 호응하였고, 뱃소리 공연 때 고기를 건져올리는 대목에선 자신들이 고기를 많이 잡은 것처럼 좋아했다. 상여소리 때는 당연히 감정이 입 탓인지 훌쩍이는 관객도 보였고, 흐느끼지는 않지만 침통한 기분으로 마치 자신의 가족을 떠나보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한국소리터-평택농악마을

한국소리터는 민속·문화예술인들이 머물며 보유 재능을 전수하는 공간으로 실내공연장(지영희 홀)과 야외공연장(평택농악마을) 등을 갖추고 있다. 세계 인류무형 유산인 평택농악을 비롯한 평택민요, 평택거북놀이 등의 상설공연이 열린다. 공연이 없어도 흥겨운 우리 소리가 터를 뒤흔든다. 어제의 전통을 잇고 오늘 이 순간 전통을 만들어가는 그들이 있어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귀로 듣던 소리를 어느 샌가 호흡하며 삼키고 있었다. “얼썩”.

어울림동 1층에는 국악의 현대화에 힘쓴 지영희를 소개하는 지영희 국악관이 있다. 구전되던 우리 음악을 최초로 오선보에 기록했으며 국민무용 음악인 꼭두각시를 작곡했다. 2017년 12월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문화해설사가 상주하고 있어 예약 없이도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주소: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길 147

트립인 2018. 5. 15일자

- 어린이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평택민요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
- 평택토속민요의 유일한 농요, 어업요, 장례요의 보존과 전승·발전에 기여
- 지역민속문화의 보존으로 시민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정체성을 확립함
- 지역문화예술 진흥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 공연을 통한 민요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

IV. 자체평가(인터뷰)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예산 지원에 힘입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관중들의 만족이 공연단에 전해져 전율을 느낄 정도이다.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을 때 자부담이 늘 걱정이다. 회비와 공연수입 등으로 충당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어린이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많이 베풀어서 평택민요에 대한 교육 효과를 높이고 싶다.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본 사업이 시민들(사업대상)에게 미치는 영향 등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어렵듯이 평택민요를 알지만 이주민들은 자부심이 지대하다.

○본 사업이 문화원과 보존회 관계개선에 미치는 영향 등

경기도무형문화재 제 48호로서의 자부심을 서로 공유하여서 그런지 관계가 아주 좋다. 예능보유자들의 자부심도 높다.

○보존회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보존회와 시청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SNS를 통한 홍보와 리플렛 버스정류장, 시내버스 모니터에 자막 안내 및 KTX홍보지도 적극 활용한다.

○지원되는 보존회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시민들과 보존회의 접근성 등)

관내 초등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매주 1회 강습을 진행한다.

남부문예회관 내 강의실에서도 시민 상대 강습을 진행한다.

10. 평택문화원

V.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인터뷰)

※ 어영애 단장과의 인터뷰

○민속보존회 발전 방향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해야하는 부분 등

정기공연의 횟수를 늘리면 좋겠다.

경기도를 순회하며 소리와 민요축제를 열었으면 좋겠다.

무형문화재 축제가 좀 더 성대하게 열리면 좋겠다.

○문화원과의 관계 및 유지에 관하여 등

토속적이고 향토문화 위주의 발굴 및 지원 체계가 자리 잡히면 좋겠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축제를 열었으면 좋겠다.

향토문화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을 문화원의 당연직 이사로 우대하면 좋겠다.

VI. 추진사업 성과물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사진	공연 사진	1	
2	사진	농악북, 징 구입 사진	1	
3	CD	어린이 교육영상	1	

사진 자료



10. 평택문화원

2018 경기도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IX 운영규정

경기도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운영규정

제정 : 2015년 2월 10일

경기도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선정 팀은 다음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주관처인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운영지침에 적극 협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우수전통민속보존 지원사업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본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기준) 경기도 우수전통민속보존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지역을 제외한 상위 10개 지역(문화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단,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단체나 예산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2. 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동일작품은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최대 3년까지 지원하며 최근 3년간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3조 (지원방법) ①지원은 경기도 31개 시 군 문화원이 1개 단체 선정하여 도연합회에 접수하며, 선정된 1개 문화원 1개 단체 지원을 원칙으로 지방문화원으로 교부한다.
② 교부금은 공연비, 경연대회 참가지원비, 정기연습비, 기타운영관련 경비 등으로 지

원되며 관련 세부 지침은 사업 공모 시 별도 첨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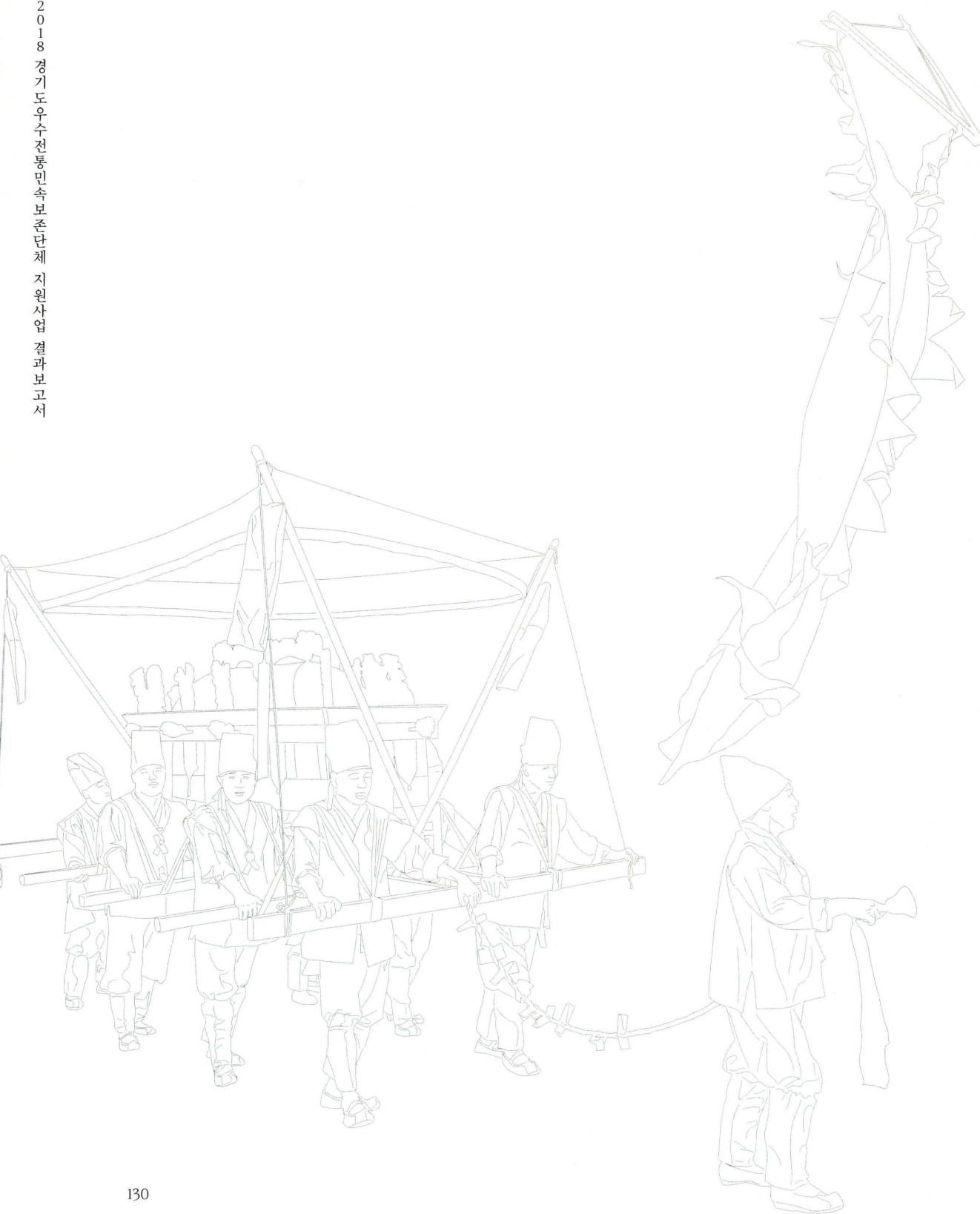
제4조 (지원 유보 및 취소) 선정된 단체에 현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선정 유보 및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의무) 지원 받은 문화원은 사업 종료 시 정산과 성과보고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사항) 본 사업의 진행상 또는 선정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적절하게 해결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와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2015. 2. 10.)

(시행일)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날인 201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X 언론 보도자료

언론 보도 현황

구분	지역	보도일자	언론사	기사주소	타이틀
1	고양	2018. 10. 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0913122300805?input=1195m	[연합이매진] 고양행주문화제
2	광명	2018. 10. 17	광명지역신문	http://www.joygm.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98	제12회 광명농악대축제, 생명의 소리여! 영원한 민족혼이여!
3	김포	2018. 6. 16	뉴스1	http://news1.kr/articles/?3347009	[화보]중봉 조헌 선생을 기리며...김포 중봉문화 제 개최
4	시흥	2018. 7. 24	경기도민일보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539	시흥문화원, 2일간 제27 회 시흥 연성문화제
5	용인	2018. 10. 9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527679	용인시, 제 16회 포은문 화제 개최
6	평택	2018. 5. 15	이데일리 트립in	http://tripin.edaily.co.kr/%EC%97%B0%ED%99%8D%EC%83%89%EA%B0%90%EC%84%B1%EA%B3%BC%EC%98%A4%EB%B0%A9%EC%83%89%EA%B0%90%ED%9D%A5%EC%9D%B4%EB%8F%8B%EC%95%84%EB%82%98%EB%8A%94%ED%8F%89%ED%83%9D%ED%98%B8/	연홍색 감성과 오방색 감홍이 돌아나는 평택호

언론 보도 스크랩

I. 고양문화원 | 연합뉴스 |

“[연합이매진] 고양행주문화제 ”

[연합이매진] 고양행주문화제

기사입력 2018/10/09 08:01 송고

'대림의 현장' 행주산성에 분 평화의 바람

《고양=연합뉴스》 임형두 기자 = 바다에 홍무공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면, 육지에는 홍장공 권을 장군이 있었다. 나라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뜨렸던 임진왜란, 패퇴를 거듭하던 조선 육군은 권을 장군의 빼어난 리더십과 백성들의 자발적 참여로 적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고양행주문화제는 임진왜란 3대 대첩인 행주대첩의 승전을 기념하고 권을 장군과 순국선열들의 헌신적 애국정신을 기리는 행사다. 올해로 31회째를 맞은 이 문화제의 열기 속으로 들어가 봤다.



평화의 비둘기 풍선 날리기 [고양시 제공]

“105만 고양시민 대화합의 축제! 평화가 온다, 기쁨이 온다 제31회 행주문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전통한복을 차려입은 초등학교 남녀 어린이가 씩씩하게 무대에 오르더니 당찬 목소리로 축제 개막을 온 세상에 알렸다. 객석의 환호와 함께 취타대 나팔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다. 이어지는 무용단의 화려한 축하공연, 북의 활연과 훈령무, 달무리 공연이 남자의 기상과 여인의 아름다움을 감명 깊게 보여줬다.

덕양산 행주산성의 대첩문 앞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 9월 8일 열린 개막식은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풍선 날리기로 절정에 달했다. 내빈, 관람객 등 참가자들은 사회자의 외침과 동시에 각기 손에 든 하얀 비둘기 풍선을 파랑계 열린 하늘로 날려 보냈다. 가을바람을 타고 훌훌 날아오른 풍선들은 평화의 염원을 담은 채 항공 속으로 점점이 사라져갔다. 미와 동시에 대합창곡 '산성에 부는 바람'이 천지간을 뒤흔들었다.

II. 광명문화원 | 광명지역신문 |

“제12회 광명농악대축제, 생명의 소리여! 영원한 민족혼이여!”

광명지역신문

HOME > 문화·복지

제12회 광명농악대축제, 생명의 소리여! 영원한 민족혼이여!

홍대호 기자 송인 2018.10.17 18:32

[광명지역신문=홍대호 기자] “생명의 소리여! 영원한 민족혼이여!” 광명시가 주최하고,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0호 광명농악보존회가 주관하는 제12회 광명농악대축제가 10월 27일(토)~28일(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다.



광명농악은 450여년 전부터 철산리, 소하리, 학운동 지역에서 전해 내려왔던 광명지역의 전통민속놀이로 1997년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1999년부터 정월대보름축제를 시작으로 현재 광명농악대축제로 전환돼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각 동 농악경연대회는 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민속놀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Ⅲ. 김포문화원 | 뉴스1 |

“[화보]’중봉 조헌 선생을 기리며’...김포 중봉문화제 개최 ”



전국 > 인천

[화보]’중봉 조헌 선생을 기리며’...김포 중봉문화제 개최

전통 제례 고유제 및 취타대 행진 선보여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2018-06-16 13:52 송고



취타대가 16일 김포 문화원 앞 도로에서 중봉문화제를 기념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중봉문화제는 김포 사우동 아트빌리지 일대에서 열리며 중봉학술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2018.6.1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IV. 시흥문화원 | 경기도민일보 |

“시흥문화원, 2일간 제27회 시흥 연성문화제 ”

시흥문화원, 2일간 제27회 시흥 연성문화제

시흥=이재순기자 | 승인 2018.07.24 09:51

연꽃테마파크와 관곡지 일원에서 다채



시흥 연성문화제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모습.

시흥문화원(원장 정원철)이 28~29일 연꽃테마파크(관곡지로 139)와 관곡지 일원에서 '제27회 연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연성문화제의 첫째 날인 '연성의 날'(28일)에는 연성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관내 청소년들의 재능을 펼치는 청소년 끼 발산 한마당, 시흥시 문화홍보대사, 시립전통예술단 공연, 문화가족 한마음 콘서트, 지방정부 문화두레 초청공연이 진행된다.

과거 연성의 시작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강희맹 사신단 행렬 행사에는 올해부터 시민들이 행렬단으로 참여해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래놀이, 한지공예·서각, 연꽃등 만들기, 시흥의 설화 들려주기, 트릭아트 등 다양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과 시조, 한국화, 서양화 공모전, 글쓰기·사생대회(관곡지)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이어진다.

둘째 날인 '민속의 날'(29일)에는 중요무형문화재인 은율탈춤, 산타령, 서도소리 공연과 시흥전통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월미농악, 시흥향토민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동아리 등)이 펼쳐진다.

V. 용인문화원 | 경기일보 |
“용인시, 제 16회 포은문화제 개최”

용인시, 제 16회 포은문화제 개최

✎ 김승수 기자 | 📅 승인 2018.10.10 | 📄 12면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
용인시

제16회
포은
문화제

2018.10.12(금)~14(일)
포은 정몽주 선생 묘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농곡로 45)

구분	연주/출연	시간
10.12(금) 14:00	국립합창단	14:00~14:30
10.13(토) 10:00	국립합창단	10:00~10:30
10.13(토) 14:00	국립합창단	14:00~14:30
10.14(일) 10:00	국립합창단	10:00~10:30
10.14(일) 14:00	국립합창단	14:00~14:30

용인시는 오는 12~14일 처인구 모현읍 능원리 포은 정몽주 묘역 일대와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새마을공원에서 '제16회 포은문화제'를 개최한다.

용인문화원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전국 유림의 표상으로 추앙되는 포은 선생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고자 매년 능원리 묘역 일대에서 열리는 전통문화축제다.

포은문화제는 조선 태종 6년(1406) 포은 정몽주 선생의 묘를 개성 풍덕에서 고향인 경북 영천으로 옮기던 중 지금의 용인 풍덕천동에 이르렀을 때 화오리 바람이 일면서 명정이 날아 지금의 능원리 묘역에 떨어진 것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이곳에 묘를 모신데 기원하고 있다.

Ⅵ. 평택문화원 | 이데일리 트립in |

“연홍색 감성과 오방색 감흥이 돌아나는 평택호 ”

△한국소리터·평택농악마을

한국소리터는 민속·문화예술인들이 머물며 보유 재능을 전수하는 공간으로 실내공연장(지영회 홀)과 야외공연장(평택농악마을) 등을 갖추고 있다. 세계 인류무형 유산인 평택농악을 비롯한 평택민요, 평택거북놀이 등의 상설공연이 열린다. 공연이 없어도 흥겨운 우리 소리가 터를 뒤흔든다. 어제의 전통을 잇고 오늘 이 순간 전통을 만들어가는 그들이 있어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귀로 듣던 소리를 어느 샌가 호흡하며 삼키고 있었다. “얼쑤”.

어울림동 1층에는 국악의 현대화에 힘쓴 지영회를 소개하는 지영회 국악관이 있다. 구전되던 우리 음악을 최초로 오선보에 기록했으며 국민무용 음악인 꼭두각시를 작곡했다. 2017년 12월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문화해설사가 상주하고 있어 예약 없이도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주소: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길 147

이용시간: 지영회 국악관 10:00~17:00 (점심시간12:00~13:30)



2018 경기도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발행처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발행인 | 엄상덕

편집인 | 최영주

진 행 | 진 숙·윤동현

디자인·제작 | 글그림

발행일 | 2018.12.30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전 화 | 031) 239 - 1020

팩 스 | 031) 239 - 3785

홈페이지 | www.kccfgg.org

본 보고서는 경기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허가 없이 무단 복제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